



五倫行實圖

韓版

一

9
1439
1



門口 9
第 1497
卷 1-2

五倫行實圖

五倫行實圖



御 五倫行實圖重刊序
集古忠臣孝子烈女盡今
所事圖紀詠贊譯音而著
之編曰三綱行實宋諸賢
處長幼朋友可為法而附
以宗族師生者曰二倫行

寶二書先後出於英陵
靖陵盛際各行數百年匯
而合之集成于正宗朝
命之曰五倫行實於乎媿
矣五倫者天理之懿則人
事之當然宜若無待於外

各盡其固有之常而世級
寔降風俗日漓民鮮能知
其所稟盡其當務所以闡
明而導率之者寔君師責
爾我祖宗繼天立極聖
神相承凡教民成俗之方

荀彧書序
宏綱大規靡不畢舉而是
書之作尤為易知而易感
其牘迭啓蒙訓曲誘掖之
意至矣盡矣是書舊有板
本前冬不戒于火遂命內
閣重刊而印頒之其于

列聖闡倫悖典之改昌敢
曰堯有繼述而若夫眷
斯民扶植風教之苦心也
意庶有所孚諒焉

上之十年己未冬十月輔
國崇祿大夫行刑部尚書

事無吏曹別書弘文館大
提學藝文館大提學知成
均館事 臣金炳學奉
教謹書

御製養老務農頒行小學五倫行實鄉飲酒禮鄉約
綸音

王若曰予聞之夫子觀於鄉而知王道之易易觀政
在朝觀俗在野政之所及者淺俗之所得者深故善
乎觀人之國者必先其野而後其朝肆予膺天之嘏
恭逢 慈宮週甲期與八方臣庶共其樂尊年錫類
之典無所不用其極而觀於朝政無可紀觀於野俗
不維新惟予一人否德不敢比先王觀也每中夜以
思忘寢屢興憫近俗之難矯慨初心之多負予之所
自期豈欲如斯而止乎哉人心安則逸逸則玩玩則

縱而浪遂至沉酣養於積累昇平之樂而幼違蒙
養之正長乏師受之益指拘檢爲迂詭視靡誕爲活
計自少至老若不知天叙天秩之有典有則三杯揖
讓固尙矣風流之篤厚亦難乎一變而至夫愛親者
不敢惡於人敬親者不敢慢於人以其廣敬而因本
也故虞夏商周之相承富德親爵之有殊而齒則不
遺者蓋年之爲貴次於事親也凡今之人不畏遺年
也故其弊也爲五品之不遜經曰先王有至德要道
以順天下故忠可移於君順可移於長治可移於官
傳曰人人親其親長其長而天下平廣敬因本之責

子方反求之不暇而物候窮則天根露習氣盡而真
情見意者時雍日新之機迨其今乎小學一書卽學
校始教之次第節目也以予寡昧尙賴先大王導
迪之恩記在童習之年粗收日講之力世之子弟雖
不及遍通六經或庶幾勉勉持循於做人樣子而邇
來學日益渝教日益弛此書隨而東閣予爲是瞿爰
命內閣之臣就訓義而攷證之且三綱二倫行實等
篇爲輔治勵世之具與小學書不可偏廢釐爲一編
命之曰五倫行實予又思之一日禮行風動四方惟
鄉飲酒近之是禮也休老而勞農導歡而序齒明貴

御製經音
賤而辨隆卑正身安國之要率是以興也粵我世宗盛際創行養老宴三綱行實之頒下亦在其時民到于今舉切親賢樂利之思而不能諉予小子其敢不修述焉然鄉約之於化民成俗亦易爲力朱夫子蓋嘗月朝讀約三代之制如復可見予故曰因今之民變古之俗被之以仁義示之以本實鄉約之效不差於鄉飲酒此規亦不可不講而明之機務之暇彙成鄉飲儀式鄉約條例欲其委曲周摯文質俱備偕我同胞之民油然而起感肅然知序苟使是舉不歸於徒法徒言則何頑之敢梗何愚之不明乎咨爾有衆

毋侮古訓毋迂予言俛焉孳孳惟茲飲茲約是講是遵其君子若生三古而秉周禮其小人若捧乘矢而游矍圃一切知菽粟可去而親親長長之不可斯須去以爲人乎何暇他求卽此而民志壹世教靖予與爾有衆共享无疆之祚以對越天地之耿光以丕承祖宗之謨烈尙克時忱其永有賴觀乎朝野彬彬改觀則受豐福而享勳力其在斯乎其在斯乎故曰老老而民興孝又曰老吾老以及人之老值三元之嘉會祝萬壽於慈宮仰瞻韶顏喜騰難老推而廣之休寧羣老羣老之休且寧顧不係於豐年之多黍多

稔乎故勞農為休老之本四日得辛則熟十日得辛則稔熟既驗於昨歲稔可占於今年天以錫我康功我亦勤茲田功後志之應庶可質諸歲歲年年如昨如今以至萬斯年無斃農夫之慶人子之慶也人子之慶朝廷之慶也

上之二十一年正月初一日

五倫行實圖序

上之二十有一年丁巳月正元日誕誥八方以休老勞農之義尋以鄉飲酒鄉約條例士冠昏儀釐為一編又教若曰我朝儀物之備隆自我 英陵盛際

聖神相承治教休明而三綱二倫之書後先彙成列于學官為化民成俗之本今欲講行鄉禮宜自二書而表章之乃命其書曰五倫行實以臣晚秀與聞是役俾為之序臣謹拜手稽首言曰臣聞禮也者序也序也者倫叙也品秩也叙之以君臣父子兄弟夫婦朋友之倫秩之以尊卑貴賤等級隆殺之品敬為主

而和爲用用之朝廷鄉里閨門之中上下莫不和敬而三物之教興二南之化行垂而爲天下則立而爲萬世法恭惟我 殿下孝冠百王道接千聖明於人倫之至察於庶物之品推躬行心得之餘懋時敏日躋之工治必師古事必率舊百度惟貞兆民允協然以大禹不自假之衷常有文王如未見之歎丕惟曰使斯民不得爲堯舜之民時予之責也亦惟曰使斯世不得爲唐虞之世時予之責也既又曰咨不遜不親勉哉敷教此乃我 殿下所以命 臣等潤色而 臣等所以承命考校者也而其爲書上撫純行矯節

搜卓烈懿範傳以記之繪以象之詩以詠之贊以褒之使匹夫匹婦一開卷一涉目油然起感悚然興惕皆有以知其爲臣忠爲子孝爲婦貞長其長友其友之爲性分之所固有職分之所當然不待司徒典樂之屬誘掖薰陶之功賢者俯而就之愚者跂以及之此又我 聖祖所以創命裒輯而我 殿下所以修述闡明者也 臣等管蠡何敢贊一辭於其間哉書曰天叙有典勅我五典五惇哉天秩有禮自我五禮五庸哉同寅協恭和衷哉易之繫曰觀其會通以行其典禮推而行之存乎道不言而信存乎德行斯民也

堯舜之民也斯世也唐虞之世也唐虞之教行于斯世而堯舜之治及於斯民在 殿下注措施爲之動合堯舜唐虞_臣敢書此以備誓御之箴是歲孟夏嘉善大夫行承政院左承旨兼經筵叅贊官春秋館修撰官 奎章閣直提學知製教_臣 李晚秀奉教謹序

二倫行實圖原序

天生烝民有物有則該而目之爲五倫撮而揭之爲三綱皆根於人心之所固有天理之所當然其曰倫曰綱非有二也 本朝三綱行實之書旣廣布中外人人皆知忠臣孝子烈婦之行爲可仰也莫不感激奮勵以興起其善心獨於長幼朋友二倫未之見焉今慶尙道觀察使金公諱安國嘗在政院入侍經幄請撰二倫行實添續三綱以備觀感 上可之下禮曹令設局撰進命未及行而公出按于南首屬前司譯院正曹仲撰集歷代諸賢處長幼交朋友其行蹟

可爲師法者得若干人於兄弟圖附宗族於朋友圖附師生紀事圖贊諺譯悉倣三綱行實刊于金山郡請余爲序余受而讀之爲之言曰書曰立愛惟親立敬惟長始于家邦終于四海曾子曰君子以文會友以友輔仁蓋敬長所以廣其悌也取友所以輔其德也將使一國之人人人興於悌以敬其長則風俗其不厚乎人人取其友以輔其德則善人其不衆乎風俗厚則上下安善人衆則治道進然則是書自當與三綱行實並行於世爲 聖朝教化之基本豈不美歟恭惟我 主上殿下聖智天縱日與賢士大夫討

論經史講廟治道莫不以教化爲致治之先務公能上體聖意賦政之初汲汲焉編輯是書刊行州里以扶植彝倫爲化民之本而躬率礪師生以考其德業旁搜孝行貞烈之卓異者聞于 上而旌表之又令慶州安東等五邑刊書籍之有關於治道者凡十一其曰童蒙須知正蒙養也曰口訣小學培根本也曰三綱二倫行實明人倫也曰性理大全崇正學也曰諺解正俗諺解呂氏鄉約正鄉俗也曰諺解農書蠶書敦本業也曰諺解瘡疹方辟瘟方救天札也此雖未足以盡公之善而然因此可以見公之學問抱負

大有以異於人也噫世之觀是書者其皆以公之心
爲心勉之哉正德戊寅三月晉川姜渾書于晉之東
臯村舍

三綱行實圖原序

天下之達道五而三綱居其首實經綸之大法而萬
化之本源也若稽諸古帝舜慎徽五典成湯肇修人
紀周家重民五教而賓興三物帝王爲治之先務可
知也已宣德辛亥夏我 主上殿下命近臣若曰三
代之治皆所以明人倫也後世教化陵夷百姓不親
君臣父子夫婦之大倫率皆昧於所性而常失於薄
間有卓行高節不爲習俗所移而聳人觀聽者亦多
予欲使其特異者作爲圖贊頒諸中外庶幾愚夫
愚婦皆得易以觀感而興起則亦化民成俗之一道

五倫行實圖
也乃命集賢殿副提學臣 偃循掌編摩之事於是自
中國以至我東方古今書傳所載靡不蒐閱得孝子
忠臣烈女之卓然可述者合百有十人圖形於前紀
實於後而并系以詩孝子則謹錄 太宗文皇帝所
賜孝順事實之詩兼取臣 高祖臣 溥所撰孝行錄中
名儒李齊賢之贊其餘則令輔臣分撰忠臣烈女之
詩亦令文臣分製編訖賜名三綱行實圖令鑄字所
鍍梓永傳爰命臣 採序其卷端臣 採竊惟君親夫婦
之倫忠孝節義之道是乃降衷秉彝人人所同窮天
地之始而俱生極天地之終而罔墜不以堯舜之仁

而有餘不以桀紂之暴而不足然先王之時五典克
從民用和睦而比屋可封三代以後治日常少而亂
賊之徒接跡於世者良由君上導養之如何耳今我
主上殿下以神聖之資盡君師之道功成治定萬目
畢張而以扶植綱常維持世道爲本凡有關於名教
者無不講究商確著爲彝典所以化民於躬行心得
之餘者既極其至猶慮興起之方有所未盡乃爲此
書廣布民間使無賢愚貴賤孩童婦女皆有以樂觀
而習聞披玩其圖以想形容諷誦其詩以體情性莫
不歆羨歎慕勸勉激勵以感發其同然之善心而盡

其職分之當爲矣蓋與帝王惇典敷教之義同一揆而條理有加密焉由是民風丕變治道益隆家盡孝順之子國皆忠藎之臣南陔白華之什漢廣汝墳之詩將繼作於委巷之間王化之美當無讓於二南而王業之固實永傳於萬世後之君子益體宸衷服膺敬守於無窮豈不躋歟宣德七年六月奉列大夫集賢殿應教藝文館應教知製教經筵檢討官臣權採奉教序

三綱行實圖原跋

三綱行實圖一編卽我世宗朝刊布民間以爲明人倫敦教化之一助者也蓋生民彝倫不出於此三者能盡其道則爲聖爲賢不能者人不得爲人故先王教民莫不以是爲本此編之行已三百有餘年則今日吾民之能子而孝臣而忠夫和婦順不陷於禽獸夷狄者未必非此編有以觀感之也其爲助豈少也哉凡民之生俱有秉彝雖甚頑難化者苟見古人至行感人處則未嘗不戚然動心或能幡然悟決然改復爲善人君子者有之此編所圖悉皆古人之至

五倫行實圖
性特行而又留詩以係其末則凡觀其圖諒其詩者苟有人性其孰不觀感而興起也此當日 聖祖之所以特命刊布者也余於昨年謫此道見民俗猶未甚淳心竊慨然矣及爲方伯意欲廣布此圖以助宣化之方而本道舊無此板遂求得一本募遊手刊出而顧其舊譯諺書語甚簡難解又皆增刪改翻使觀者雖愚夫愚婦皆得瞭然易知仍分布一道冀得以少補風化之萬一噫古語曰以心教者從以言教者訟爲上者苟無躬行之實顧安得化其下哉今余此圖之刊行非以謂化民之本專在於是爲政者亦不

可不知此意也歲丙午春行平安道觀察使兼都巡察使尹憲柱謹跋

製臣教 李晚秀

禦侮將軍行龍驤衛副司果 奎章閣檢校待教

知製臣教 沈象奎

內閣講製抄 啓文臣朝奉大夫行議政府檢詳

兼春秋館記注官南學教授臣 金近淳

內閣講製抄 啓文臣宣略將軍行龍驤衛副司

果臣 申絢

內閣講製抄 啓文臣通善郎行藝文館檢閱兼

春秋館記事官臣 吳泰曾

內閣講製抄 啓文臣務功郎行藝文館檢閱兼

春秋館記事官臣 金履永

內閣講製抄 啓文臣秉節校尉忠武衛副司正

臣 曹錫中

內閣講製抄 啓文臣秉節校尉忠武衛副司正

臣 洪奭周

己未重刊奉

教監董

輔國崇祿大夫行判敦寧府事兼吏曹判書判義

禁府事 奎章閣檢校提學臣 金炳國

崇祿大夫行吏曹判書兼弘文館大提學藝文館

大提學知成均館事 奎章閣提學臣南秉哲
崇祿大夫行吏曹判書兼判義禁府事知 經筵
春秋館事弘文館提學 奎章閣提學臣金輔根

五倫行實圖卷第一目錄

孝子

閔損單衣	子路負米
臯魚道哭	陳氏養姑
江革巨孝	薛包洒掃
孝娥抱屍	黃香扇枕
丁蘭刻木	董永貸錢
王裒廢詩	孟宗泣竹
王祥剖冰	許孜埋獸
王延躍魚	楊香搯虎

潘綜救父

叔謙訪藥

不害捧屍

孝肅圖像

孟熙得金

吳二免禍

劉氏孝姑

自強伏塚

殷保感鳥

黔婁嘗糞

吉玃代父

王崇止雹

盧操順母

徐積篤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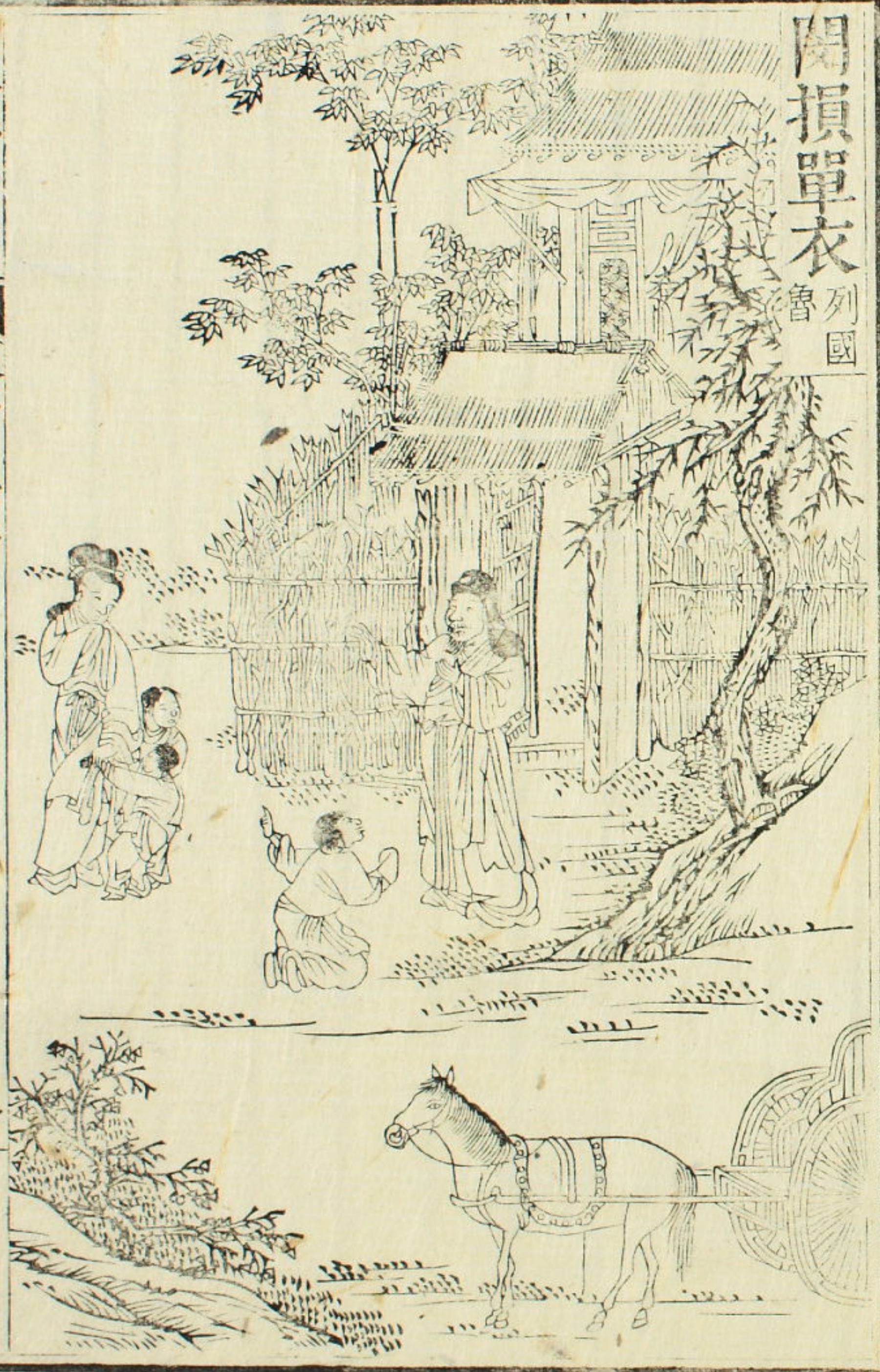
王薦益壽

婁伯捕虎

石珍斷指

閔損單衣

列國魯



閔損字子騫孔子弟子早喪母父娶後妻生二子母嫉損所生子衣棉絮衣損以蘆花絮父冬月令損御車體寒失朝父察知之欲遣後妻損啓父曰母在一子寒母去三子單父善其言而止母亦感悔遂成慈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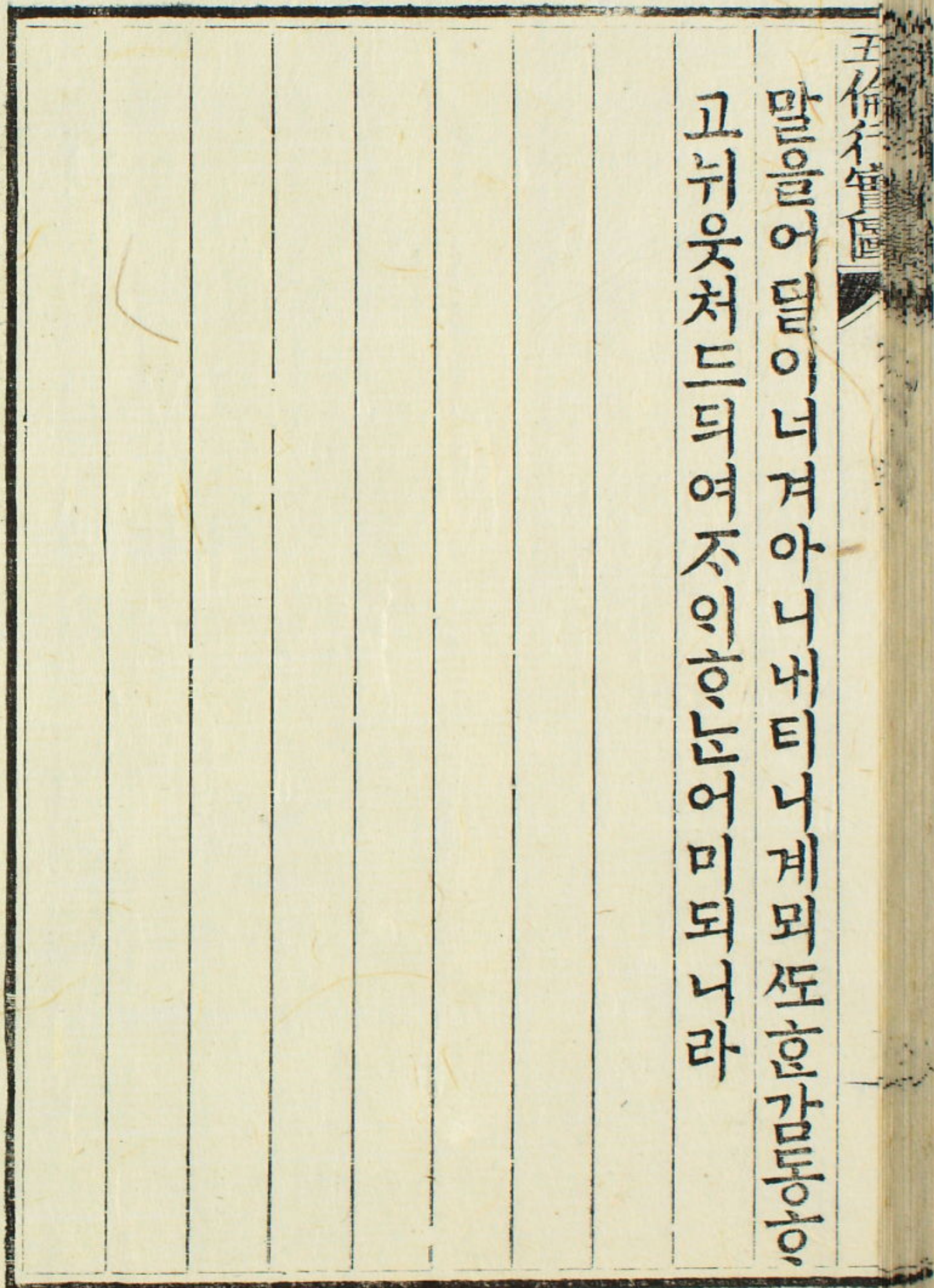
詩身衣蘆花不禦寒隆冬寧使一身單仍將好語回嚴父子得團圓母得安 孝哉閔損世稱賢德行由來萬古傳繼母一朝能感悟從茲慈愛意無偏

贊後母不慈獨厚己兒弟溫兄凍蘆絮非棉父將

逐母跪白于前母今在此一子獨寒若令母去三子俱單父感而止孝乎閔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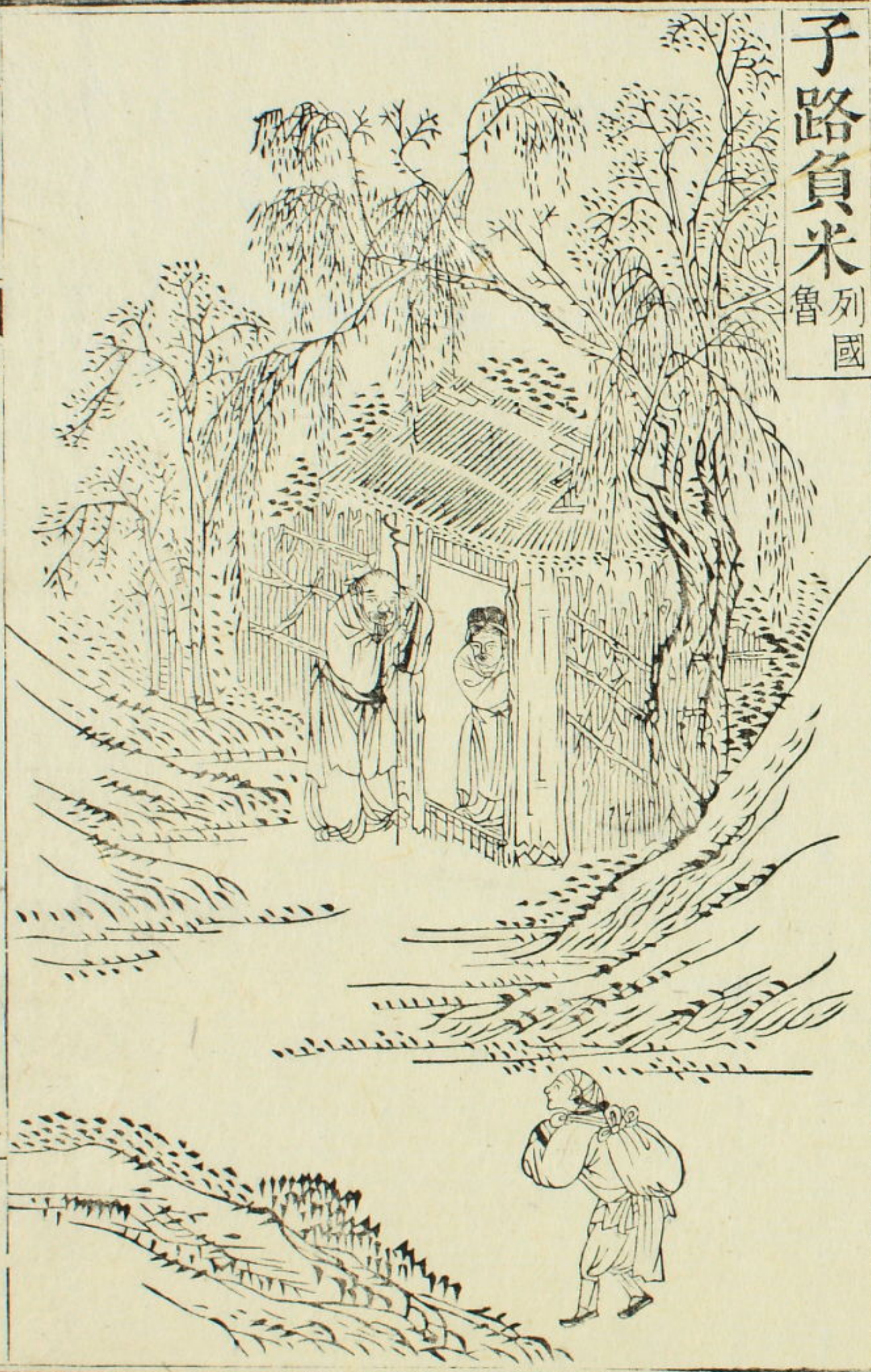
민손의는는는건이니공저데지라일즉어미죽고아비후쳐를취하여두아들을나흐니손의게외손을의위하여나흐아들으란오시소음두어남히고손으란곧품을두어남히더니겨을에그아비손으로하여곰술위를몰시치위물혁을노하브린디아비슬퍼알고후쳐를내티고져하거늘손이슬와곧오디어미이시면훈아들이침고어미업스면세아들이치우리이다훈대아비그

말을어덜이너겨아니네티니게되또한감말은아
고귀웃쳐드되여즈의흐는어미되니라



子路負米

魯列國



仲由字子路孔子弟子事親至孝家貧食藜藿之食
爲親負米於百里之外親歿之後南遊於楚從車百
乘積粟萬鍾累茵而坐列鼎而食乃歎曰雖欲食藜
藿之食爲親負米不可得也孔子聞之曰由也可謂
生事盡力死事盡思者也

詩家貧藜藿僅能充負米供親困苦中當日孔門

稱盡孝仲由千古播高風 一朝列鼎累重茵富

貴終能念賤貧生事死思惟盡孝聖門嘉譽屬賢

人

증유의는되니공부테지라어버이섬기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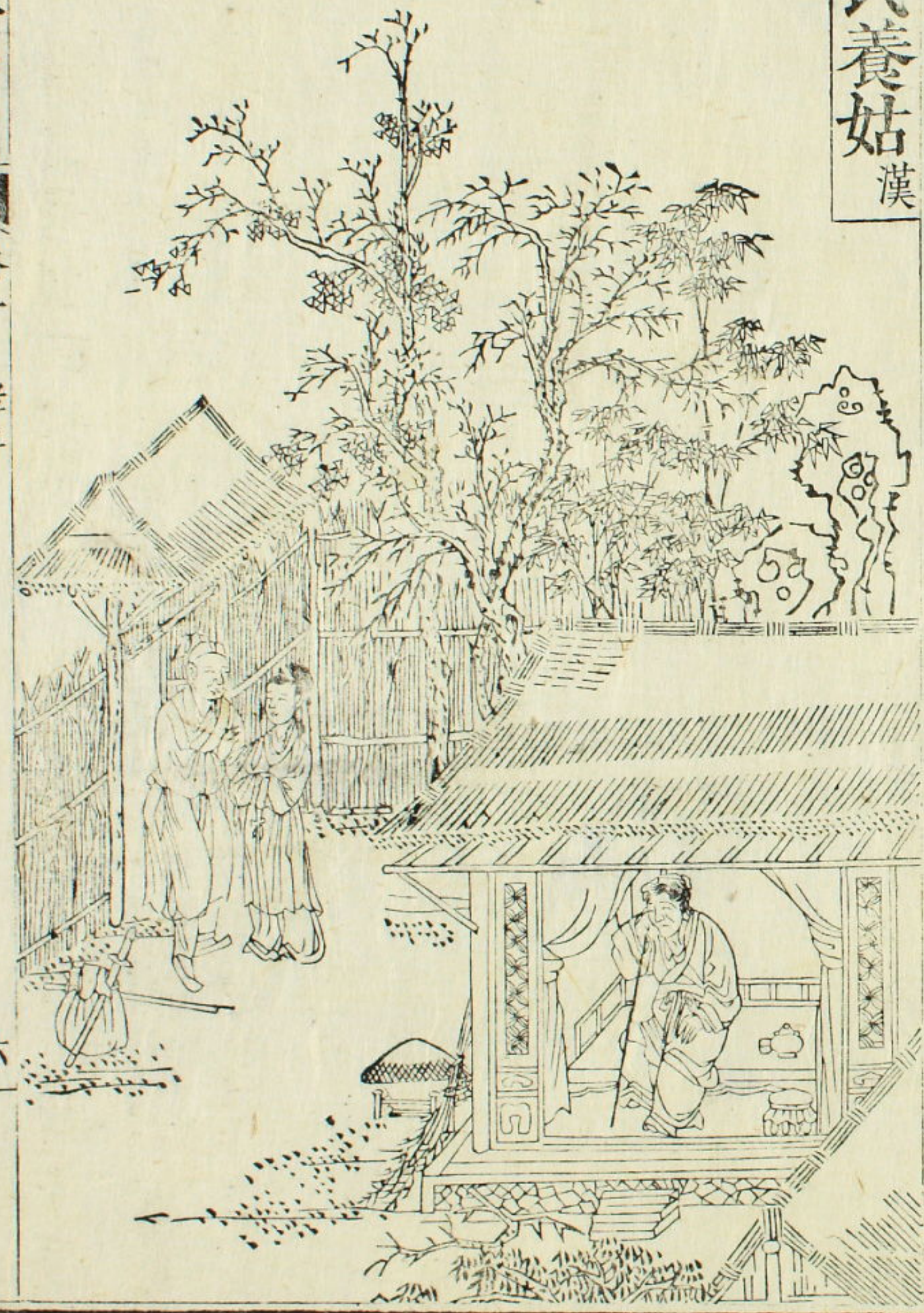
지효로할시집이가난하야는물음식을먹으며
어버이를위하야빅니빳피달을져오더니어버
이죽은후의남으로초나라히놀시조촌술위일
빅이오만종곡식을빠흐며자리물겹으로안즈
며솓출버려먹을시에탄식하여곧오디비록
는물을먹으며어버이위하야달을지라하나가
히엇디못하리로다훈대공지드르시고곧은샤
디자로는가히닐오디살아셔섬기매힘을다하
고죽은후섬기매스모하물다하다하리로다



孔子出行聞有哭聲甚悲至則皐魚也被褐擁劍哭
 於路左孔子下車而問其故對曰吾少好學周流天
 下而吾親死夫樹欲靜而風不止子欲養而親不待
 往而不可返者年也逝而不可追者親也吾於是辭
 矣立哭而死於是孔子之門人歸養親者一十三人
 贊皐魚銜恤自訟自傷親不待養如何彼蒼泣盡
 眼枯立死路傍嗟嗟卓行見重素王
 公其나가실시우름소리심히슬프믈드르시고
 다드라보시니고어란사름이라보오슬납고갈
 을가지고길마의셔울거늘공저술위에느리샤

그연고물르르신대디흥여졸오디져머셔흥문
을도화흥여턴하에두로튼니더니어버이죽은
디라므릇남기고요흥고져흥여도브람이그치
디아니흥고주식이효양흥고져흥여도어버이
기느리디아니흥느니가고도라오디아니흥는
거손히요죽으매쓰로디못흥리논어버이니내
여괴셔하직흥느이다흥고셔셔우다가죽으니
이에공주테지도라가어버이봉양흥는재열세
사람이러라

陳氏養姑 漢



陳孝婦年十六而嫁其夫當戍且行屬曰我生死未可知幸有老母無他兄弟備養吾不還汝肯養吾母乎婦曰諾夫果死不還婦養姑不衰終無嫁意其父母將取而嫁之婦曰夫去時屬妾以養老母妾既許諾養人老母而不能卒許人以諾而不能信將何以立於世欲自殺父母懼而不敢嫁養姑二十八年姑終盡賣田宅葬之號曰孝婦

贊良人遠征屬我老母身歿不歸言在敢負之死靡他養專葬厚萬世稱之曰陳孝婦

진효부는 한적사툼이니 나히 십육세에 서방마

자그지아비슈자리. 룰당하. 여장초행홀시당부
하. 여즈오디내소성을가히아디못홀디라다행
이노되거시되다른봉양홀형테업스니내도라
오디못하. 여도그디즐겨내노모를봉양홀소냐
효뵈즈오디그리하. 리이다지아비과연죽고도
라오디못하. 니효뵈식어미봉양하. 기룰게얼니
아니하. 여. 밭춤내리가홀뜻이업스니그부되장
초드려가리가하. 려하. 대효뵈즈오디지아비갈
제네게노모를맛디거늘내이의허락하. 디라
의노모를봉양하. 다가능히맛디못하. 며. 늬의게

허락하고 능히 밋브게 못하면 엇디 세상의 셔리
오하고 스스로 죽고져 하니 부외 두려워 감히
가히 못하니 식어미 를스며 뉘히 를봉양
다가 식어미 죽거늘 밤과 집을 다 파라 장스디 내
니 일홈을 효뵈라 하니라

江革巨孝 漢



江革臨淄人少失父遭天下亂負母逃難常采拾以爲養數遇賊或劫欲將去輒涕泣求哀言有老母辭氣愿歎有足感動人者賊不忍害或指避兵之方遂得俱全於難窮貧裸跣行傭以供母便身之物莫不畢給建武末與母歸鄉里每至歲時縣當案比革以母老不欲搖動自在轅中挽車不用牛馬鄉里稱曰江巨孝母終常寢伏冢廬服竟不忍除郡守遣丞掾釋服元和中詔以穀千斛賜之常以八月長吏存問致羊酒

詩至孝由來動鬼神雖逢強暴亦全身到頭母子

俱無恙天地終應福善人 平生行孝動朝廷褒

錫恩隆沐顯榮青史獨稱江巨孝古今誰復可齊名

贊江革負母逃難異鄉遇賊陳欸賊不忍傷盡心於孝備養於傭便身何物有不畢供

강혁은한나라님치사름이니어려셔아비큰일
코란리롤만나어미롤업고피란하여미양노를
을키고드른거슬주어공양홀시스로도적을만
나후갑박하여잡아가려하면문득을며비되노
되이셔라하고말슴이공순하고고절하야사름

을감동하느니도적이 차마해티못하느고혹피란할
 곳을 모르치니인하느여난리등에모지다보전하
 디라가난하느고궁박하느여몸과발을벗고고공이
 되여어미를공양하느되어미몸에편하느거손아니
 족하느거시업스디라건무 한광무대 년호라 말에어미로터
 브리고향에도라와미양세시에관가의셔빅성
 점고하느시혁이어미늡으므로요동티아니케하
 여손조술위물미러마쇼의게메오디아니하느니
 향리사름이일크르디강거효 거효는 큰회라 라하느디니어
 미죽으매미양무덤것히녀막하느고거상을모차

되상복을차마벗디못하느니군위승연 군슈아리 비솔이라 을
 보내여상복을벗겨터니원화 한장대대 년호라 등에도셔
 하느샤곡식천석을주시고미양팔월의양니 원이라
 로존문하느고양과술을주라하느시다

五德行實錄
薛包酒掃

漢



薛包汝南人父娶後妻憎包分出之包日夜號泣不去至被毆扑不得已廬于舍外早入酒掃父怒又逐之乃廬于里門晨昏不廢積歲餘父母慚而還之父母亡弟求分財異居包不能止奴婢引老者曰與我共事久若不能使也田廬取荒頓者曰少時所治意所戀也器物取朽敗者曰素所服食身口所安也弟數破其產輒復賑給安帝徵拜侍中

詩不得親心涕泗濡晨昏酒掃守門閭積誠感得親顏悅父子和諧遂厥初 中分財產讓田廬孝義能全世罕如自是佳名聞闕下侍中有命召公

車

贊父兮憎兒多因繼室兒若至誠將悔其失包也
被毆未忍遠出慚而還之終始如一

설포는 한나라 여남사람이니 아버지를 후처를 취하
매 포를 위하여 내리거늘 퇴밤낮으로 부르르지
져 울며 가디 아니하더니 매맛기에 이르러는 마
디 못하여 집밖의 막을 의지하고 이셔 일즉 이드
러와 쓰레 달흔대 아버지를 여쭙구 축하거늘 니
문에 막을 의지하고 신흠<sub>부모의 도색으
로 뵈는 데라</sub> 을 폐티아니
하여 흔히 남쪽이 되니 부외붓그러워 도로드러

오니라 부외죽으매 아이 지물을 눈화각각 살기
를 구하거늘 말니 디 못하여 노비는 혀은 거슬잡
아 곧 오디 날로 더 브러하거지로 일하연디 오래
니 너는 능히 브리디 못하리라 하고 밧과 집은 거
튼 거슬 가지며 곧 오디 내져 머실새 다스리던 배
라 마음에 권련하노라 하고 기물은 석고 상하거
슬 가지며 곧 오디 내본디 쓰고 먹던 거시라 몸과
입의 편하 배라 하고 아이 조조가 산을 파하매 든
득다 시니 위주더라 안황테 불러시등 벼슬은
이시다

孝娥抱屍

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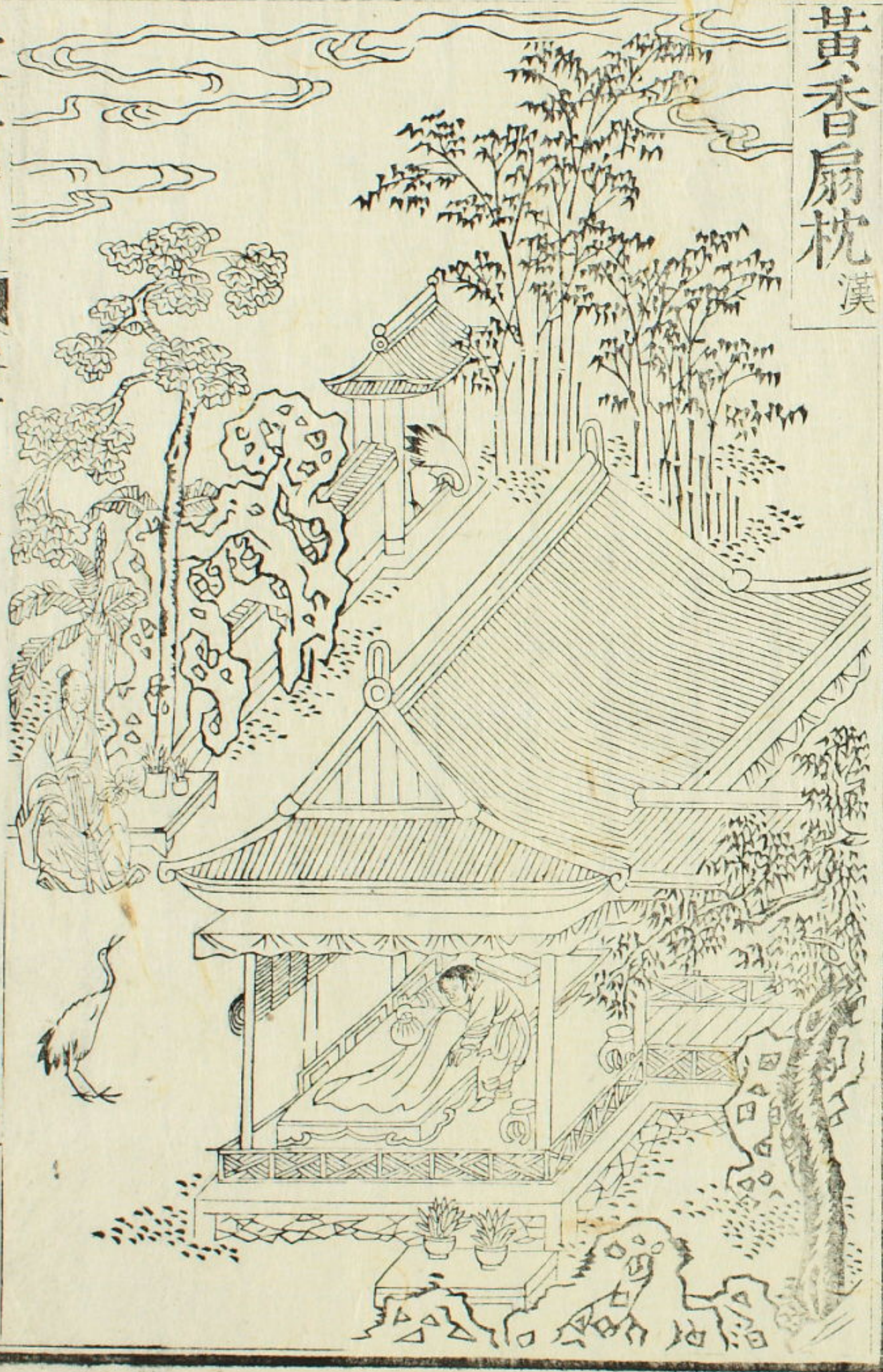
孝女曹娥者會稽人父盱為巫祝漢安二年五月五日於縣江泝濤迎婆娑神值江水大發而遂溺死不得其屍娥年十四乃沿江號哭晝夜不絕聲旬有七日遂投江而死抱父屍而出後吏民改葬樹碑焉

贊孝娥姓曹父溺驚濤娥年十四晝夜哀號聲不暫停旬又七日投江抱屍經宿以出誠貫穹壤淚溢滄浪黃絹妙筆萬世流芳

효녀 조아는 한나라 회계 사람이니 아버지가 무당이 되어 오월 오일에 강마의셔 파스신^{물신령이라}을 마즐 시마참강물이 탕일하여 싸져 죽어 그 죽음을 알엇

디 못하니 이새에 조아의 나히 십스 세라 강마으
 로 든니며 브르 지져 울어 밤낮으로 소리 툴 곳치
 디아니 하터 니 열니 레 만의 물의 싸져 죽어 아 비
 죽음을 안고 물우히 쓰니 후에 아 전과 빈성이 고
 처장스 하고 비를 세오다

黃香扇枕
漢



黃香江夏人年九歲失母思慕憔悴殆不免喪鄉人稱其孝獨養其父躬執勤苦夏則扇枕席冬則以身溫被太守劉護表而異之自是名聞於世後官累遷至尚書令至子瓊及孫皆貴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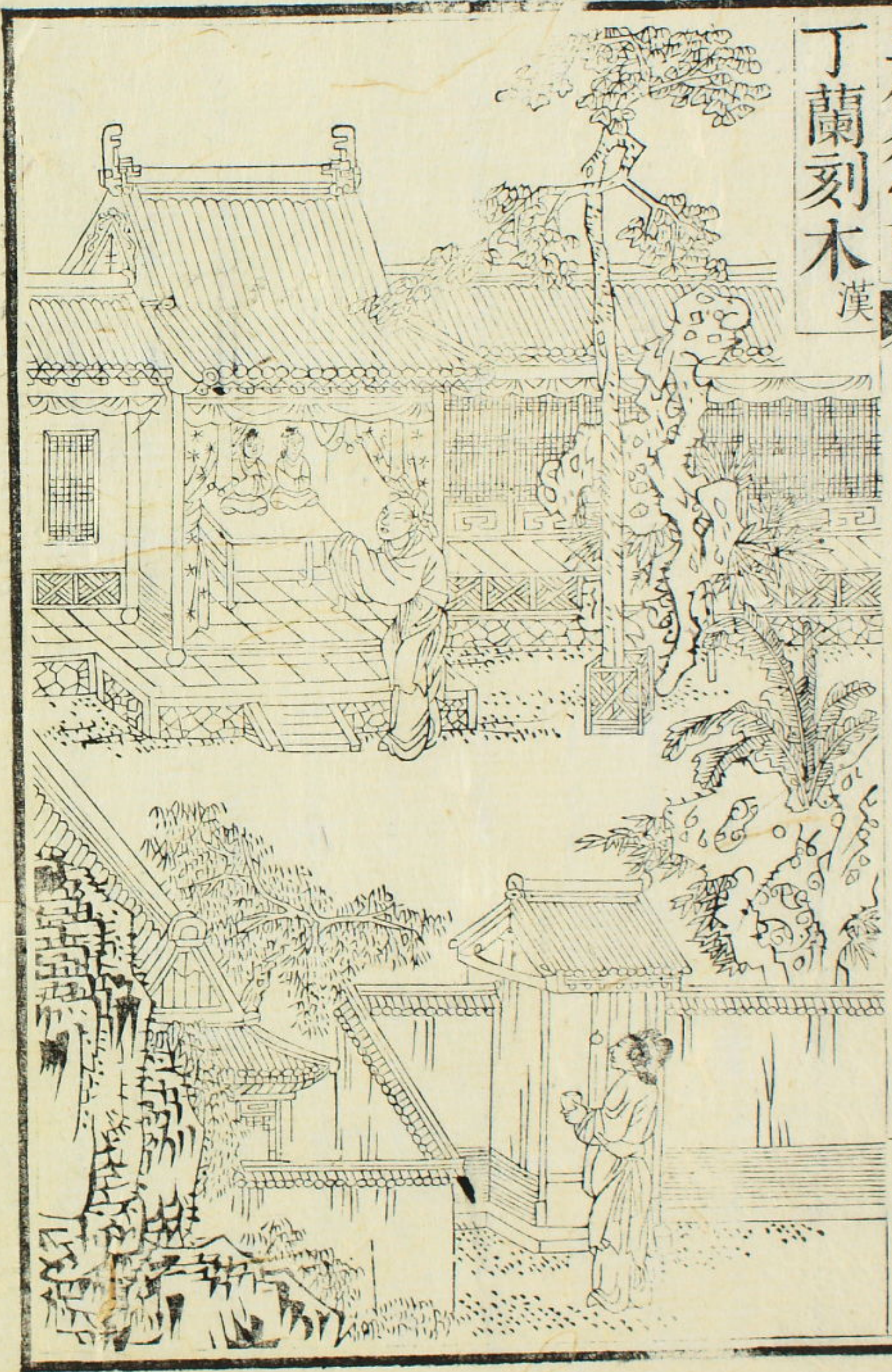
詩黃香行孝自髫年扇枕溫衾世共傳寒暑不令親體受誠心一念出天然 江夏黃童志異常當時已道世無雙累官直至尚書令孝感能令後嗣

昌

황향은 한나라 강하 사람이 나히 구세에 어미를 일코 소모하고 초취하고 여거의 죽게 되니 향나

사람이 그 효성을 일컷더라 홀로 그 아버지를 봉양
홀시 몸소 근고하고 몸을 잡아여움이 면벼개와 자리
에 부치딜하고 겨울이면 몸으로 버니 불을 드스
고게 하니 태쉬나라히 주문하고 여일로 브터 세상
에 일흠난 디라 후에 벼슬이 여러 번을 마상셔령
에 니르고 아들 과손 지다 귀히 되니라

漢



丁蘭河內人少喪考妣不及供養乃刻木為親形像
 事之如生朝夕定省後鄰人張叔妻從蘭妻有所借
 蘭妻跪拜木像木像不悅不以借之張叔醉罵木像
 以杖敲其頭蘭還即奮劍殺張叔吏捕蘭辭木像
 去木像見蘭為之垂淚郡縣嘉其至孝通於神明奏
 之詔圖其形像

詩刻木為親出至情晨昏定省似平生恍然容色
 能相接感應由來在一誠 孝思精徹杳冥間木
 像能為戚戚顏當代圖形旌至行誰人不道漢丁
 蘭

贊哀哀丁蘭早喪慈顏衆人皆有我獨無母刻木
肖形事之猶生晨昏定省以盡誠敬噫彼世人不
有其親生不能養能不泚類

噫嗚呼是漢나라하니 사름이니 일즉 부모를 일히
미처 공양하디 못하니 이에 남글사거 어버이 얼
골을 밟디라 섬기기를 성시 못하디 하여 묘석의 덩
성 부모의 뉘
입노네라 하디니 후에 니 옷사름 장숙의 체난의
쳐드려 빌리라 하느 배 잇거 놀난의 체사러 목상
귀절하여 고훈대 목상이 깃거 아니 하거 놀빌리
디 아니 하엿더니 장숙이대 취하여 목상을 꾸짖

고막대로 그마리 툄티 거 놀난이 도라와 듯고 갈
을 싸혀 장숙을 죽이니 판가의 셔난을 잡아 갈시
난이 목상을 하직훈대 목상이 난을 보고 눈물을
드리으니 군현이 그지극훈효성이 신명에 통하
믈 아롭다 이너겨 나라히 주문하니 묘셔 하샤 그
얼골을 그려 올니라 하시다

漢



董永千乘人父亡無以葬乃從人貸錢一萬曰後若無錢還當以身作奴葬畢將往為奴於路忽逢一婦人求為妻永曰今貧若是身復為奴何敢屈夫人為妻婦人曰願為君婦不恥貧賤永遂將婦人至錢主問永妻曰何能妻曰能織主曰織絹三百匹即放於是一月之內三百匹絹足主驚遂放二人而去行至舊相逢處謂永曰我天之織女感君至孝天使我為君償債語訖騰空而去

詩得錢一萬葬其親身擬為傭報主人豈料孝心終感格天教織女助身貧 孝念終能感上天為

教織女助還錢一月足縑三百匹飄然分手上雲煙

贊纒纒孝子千乘董氏傭力以養債身以葬路逢美婦爲妻償負日織縑帛一月三百償畢告語我乃織女天遣償汝乘雲而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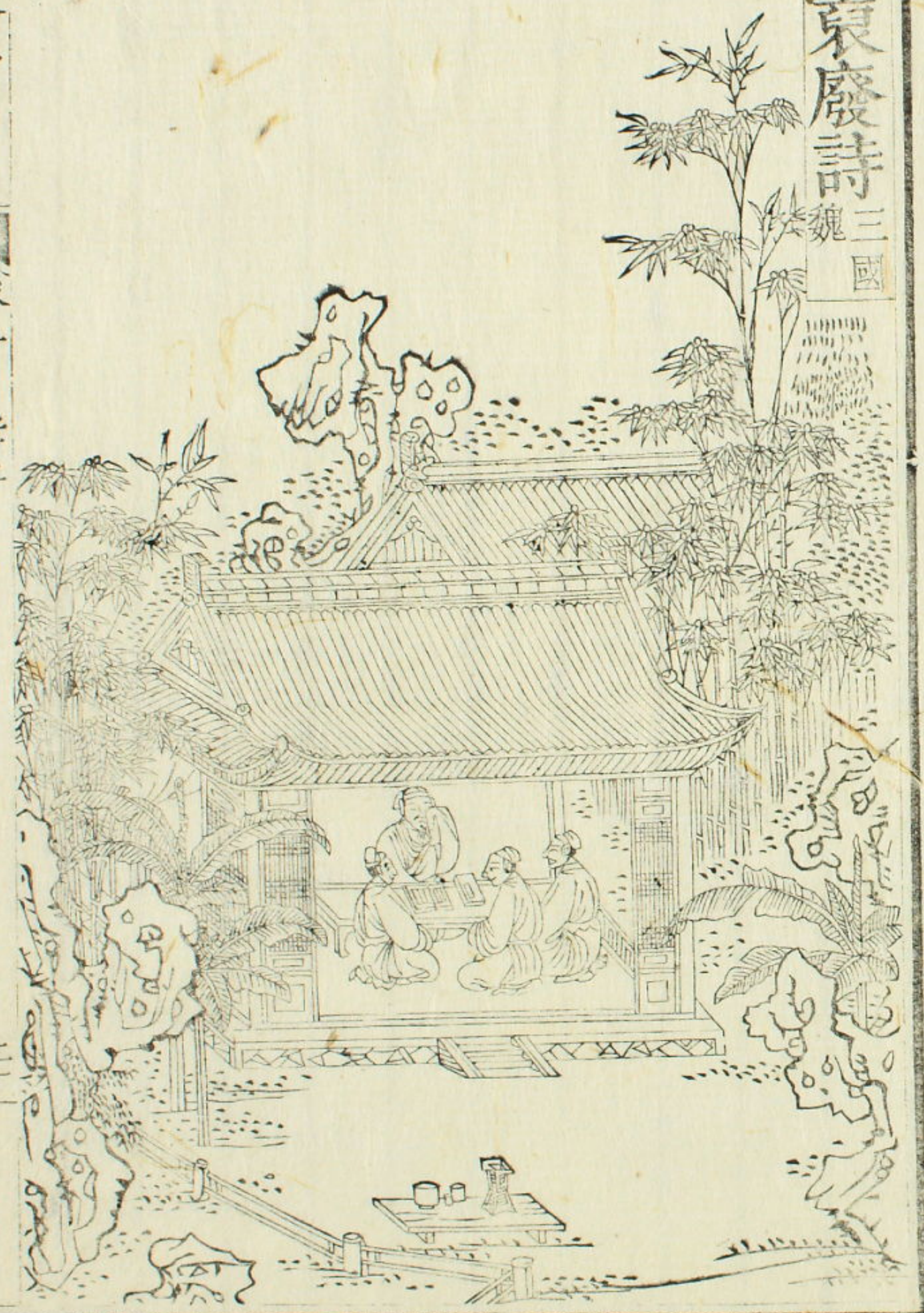
동영은 한 나라 천승 사람이니 아버죽으매 장소
흔길히 업서 사람의게 돈일만을 꾸고 곧 오디 후
의 만일 돈을 감디 못하면 맛당이 몸으로 베풀
되리라 하엿더니 장소를 마태 장치가 셔 종
되려 할시 길히 셔 흘연이 흥부인을 만나니 원하

여체 되어 디라 하거늘 영이 곧 오디 이제가 난
미이러 텃하 고 몸이 또 흥종이 되여 시니 엿디 감
히그디를 곱하 여쳐를 삼으리 오부인이 곧 오디
그디 지어미 되물원하 고 빈천하 문붓그려 아
하리 라 영이 드디 여부인을 드리고 가니 돈님 재
영의 쳐드려 무려 곧 오디 모습저 죄잇는 노체 곧
오디 뵈츙기를 능히 하느이다 돈님 재 곧 오디 김
삼빅 필을 밋면 즉시 노하리 라 하거늘 이에 흘들
니에 삼빅 필을 밋는 디라 돈님 재 놀나 두 사람
을 노하보내니 흥하 여네서로 만나던 곳에 니르

러영드러닐러온오디나느하늘직네라하늘이
그디지효를감동응샤날로응여곰그디를위응
여빛을감게응시니라응고말이므차매공응응으
로을나가더라

王褒廢詩

三國魏



王哀城陽人父儀爲魏安東將軍司馬昭司馬東關
之敗昭問曰誰任其咎儀對曰責在元帥昭怒曰欲
委罪於孤邪引出斬之哀痛父非命隱居教授三徵
七辟皆不就終身未嘗西向而坐以示不臣於晉廬
於墓側朝夕常至墓所拜跪攀栢悲號涕淚著樹樹
爲之枯母性畏雷母歿每雷輒到墓曰哀在此讀詩
至哀哀父母生我劬勞未嘗不三復流涕門人受業
者並廢蓼莪篇

詩王哀爲孝自來無淚灑泉臺栢盡枯父死獨傷
非正命終身不仕只閒居 怕聽雷聲母性然每

因雷動繞墳前蓼莪未誦先流涕遂使門人廢此
篇

贊偉元喪父不應徵辟朝夕悲號淚灑墓栢每讀
蓼莪三復涕洟門人不忍遂廢此詩

왕부는위나라성양사람이니아비일흠은의라
의안동장군스마쇼의막해되엇더니동관바흠
에패하매쇠무리곧오디뉘그죄를당하겠고하대
의디하여곧오디척망이웃등당슈의잇느니라
쇠노하여곧오디패군하죄를내게미루고저하
는다하고잠아내여버히니뵈아비명예죽으

물설위하여 숨어 이셔 글 마르 치터 니도 정의셔
여러 번 부르 시되 나 디아 니 하 고 종신 토록 셔 향
하 여 안 버 아 니 하 여 단 나 라 에 신복 디 아 니 하 는
뜻 을 보 고 무덤 곁 히 녀 막 하 여 도 석 으 로 무덤 의
너 르 러 비 례 하 며 자 남 글 밧 들 고 슬 피 브 르 지 셔
눈 물 이 남 피 브 드 치 니 남 기 마 르 더 라 어 미 성 품
이 우 레 를 무 셔 위 하 터 니 어 미 죽 으 매 덕 양 우 레
하 면 든 득 무덤 의 너 르 러 쫓 오 디 뷔 여 귀 잇 는 이
다 하 더 라 시 를 넓 을 서 의 이 부모 여 날 나 키 를 슈
고 로 이 하 샷 다 하 는 디 너 르 러 는 여 러 번 다 시 의

와 눈물 아 니 흘 릴 적 이 업 스 니 문 하 의 글 비 호 는
사 름 이 녹 아 편 을 폐 하 고 넓 디 아 니 하 터 라



孟宗江夏人性至孝母年老病篤冬節將至思笋食
 時地凍無笋宗入竹林哀泣有頃地上出笋數莖持
 歸作羹供母食畢病愈人皆以為至孝所感

詩孝行當年說孟宗慈親思笋逼寒冬竹林灑淚
 哀號處數笋須臾出地中 母因食笋病全蘇天
 理昭昭信不誣惟以此心存孝念幽冥自有鬼神
 扶

贊昔有賢士孟姓宗名冬寒母病思啜笋羹號天
 繞竹泣涕縱橫龍雛包籜雪裏羅生採歸供膳疾
 乃瘳平精誠既切感應孔明

冥중은 오나라 강하사람이니 효행이 지극하니
 라어미나히 늙고 병이 동하여 겨울에 독순을 먹
 고져흐되 싸히어려 독순이 입는디라 종이대수
 풀의 드리 가슬 피우니 이윽하여 싸우히 독순 두
 어 줄기나 거늘가지고 도라와 국을 밍드라어미
 게 드린대 먹기를 다함매 병이나으니 사람이 다
 날오디지극한 효성의 감동한배라흐더라

王祥剖冰



王祥琅琊人蚤喪母繼母朱氏不慈數譖之由是失
愛於父每使掃除牛下祥愈恭謹父母有疾衣不解
帶湯藥必親嘗母嘗欲生魚時天寒冰凍祥解衣將
剖冰求之冰忽自解雙鯉躍出母又思黃雀炙復有
黃雀數十飛入其幕有丹柰結實母命守之每風雨
輒抱樹而泣母歿居喪毀瘁杖而後起後仕於朝官
至三公

詩王祥誠孝真堪羨承順親顏志不回不獨剖冰
雙鯉出還看黃雀自飛來 鄉里驚嗟孝感深皇
天報應表純心白頭重作三公貴行誼尤爲世所

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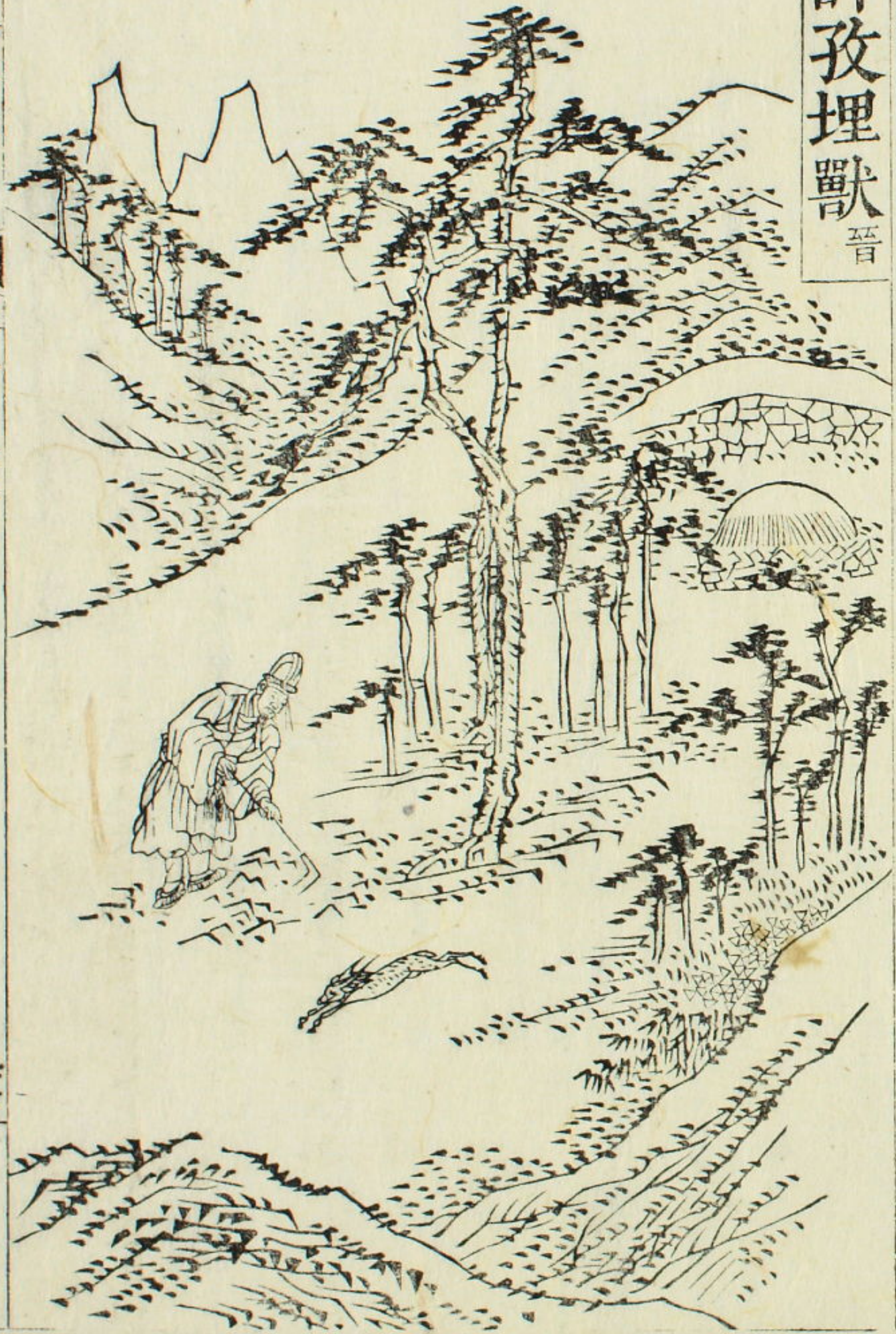
贊晉有王祥生魚母嗜天寒川凍網釣難致解衣
臥冰自躍雙鯉懇懇孝誠奚止此耳抱柰夜號羅
雀朝饋後拜三公名標青史

왕상은딘나라낭야사람이니일즉어미를여히
고게모쥬시사랑티아니하여스로참소하니일
로말미암아아비게사랑을일허미양마구를츠
라하되상이더옥공순하더라부외병이이시매
오시씩를그르디아니하고탕약을밭드리친히
맛보고어미산고기물먹고저하디날이치위믈

이어릿는디라상이오슬벗고장춧어름을새쳐
 고기를잡으려하더니어름이홀연스스로푸러
 디며니어들이섞여나더라어미또누른새적을
 먹고져하니누른새수십이그집으로노라드러
 오고어미상으로하여곰실과남글덕희라하니
 미양브람블고비오면상이남글안고우더라어
 미죽어거상홀시의혜하야병들고여외여막대
 를집흔후에니러나더라후에벼슬하야삼공에
 니르니라

許孜埋獸

晉



許孜東陽人年二十師事豫章太守孔冲受學還鄉里冲亡孜制服三年俄而二親歿柴毀骨立柱而能起建墓於縣之東山躬自負土不受鄉人之助每一悲號鳥獸翔集孜獨守墓所列植松栢互五六里有鹿犯所種松孜悲歎曰鹿獨不念我乎明日鹿為猛獸所殺致於所犯松下孜悵惋不已為埋隧側自後樹木滋茂孜乃立宅墓次事亡如存邑人號其居為孝順里

詩孝事雙親義事師此心應只有天知辛勤營墓頻哀慟鳥獸徊翔亦愴悲 墓前松栢已蒼蒼鹿

本無知遂觸傷一日我生依樹下鬼神應使孝心彰

贊許孜孝恭好學有立及喪其親柴毀而泣負土東山鳥獸翔集人之見之能不鳥邑

허는는딘나라동양사람이니나히이십에예장태슈공충을스승하야비호다가향니에도라와더니충이죽으매삼년을거상하고이응고부되다죽으니이혜하여썩드리나막대를잡고야능히니라나고무덤을경영할시몸소흙을지고근은사람의돕는거슬바디아니하더라미양슬피

브르지디면새 짐성이 나라와 못고지 흘로 무덤
 을 디히여 송백을 버려 심거 오류리의 새 쳃터니
 사슴이 심근 솔을 상하이 거늘 지슬 피란 식하여
 곧 오디 사슴은 홀로 날을 넘녀 티아니 하는 다 잇
 트늘 사슴이 범의 죽인 배 되여 그 솔 아래 두엇거
 늘 지창 연하 고슬 피하기를 마디아니 하여 무덤
 길 것히 무드니 그 후로 남기 점점 성하느니라 지
 무덤 아래 집을 짓고 죽은 어버이 섬기기를 사니
 못티 하니 고을 사림이 그 사는 디를 일극 디하
 순리라 하더라

王延躍魚



王延西河人九歲喪母泣血三年幾至滅性每至忌日則悲啼至旬繼母卜氏遇之無道恆以蒲穰及敗麻頭與延貯衣延知而不言事母彌謹卜氏嘗盛冬思生魚使延求而不獲杖之流血延尋汾叩凌而哭忽有一魚長五尺踊出冰上取以進母食之積日不盡於是心悟撫延如已生延事親色養夏則扇枕席冬則以身溫被隆冬盛寒身無全衣而親極滋味父母終廬於墓側

詩孝道能敦在稚年良心一點出天然三年泣血應堪憫忌月悲啼更可憐 繼母相看性不慈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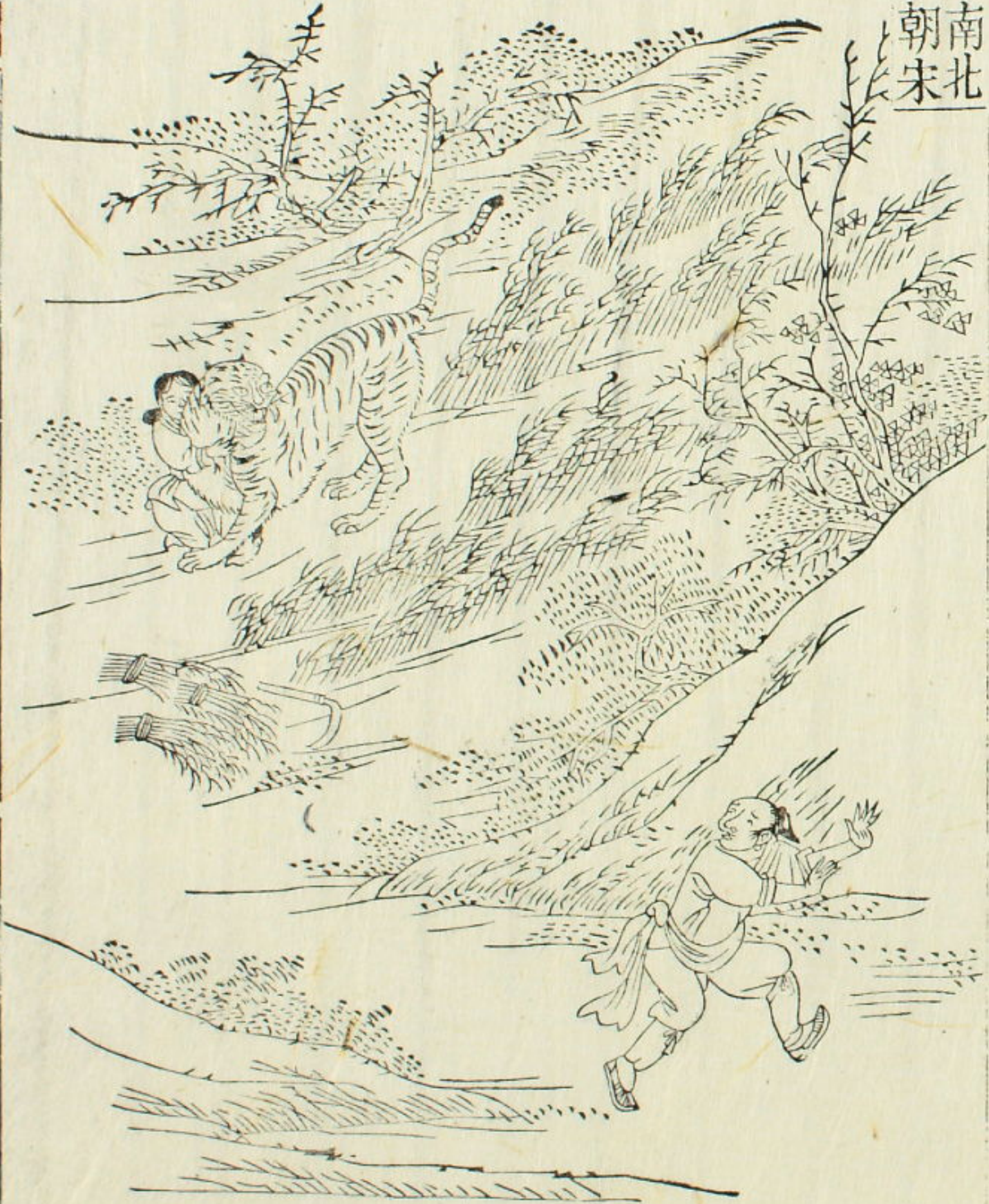
存孝敬未曾衰汾濱哀哭魚隨躍此意皇天后土知

왕연은진나라서하사람이니구세에어미를여히고삼년을피눈물을흘려거의죽기의니르고미양제날에다드르면서피울기를얼흘에니르더라계모복시무도히디접하여미양부들품과씩피삼머리로연의오시두어주니연이알오디말을아니하고어미섬기기를더욱공근하여더라복시일즉김흔겨을에산고기름먹고져하여연이로하여곰구하여엇디못하니려서피흐르논

디라연이 물에 가어 몸을 두드리며 우니 흘연은
고기 길히 다스자 하니 흘연이 어름우히 썩여 나가
늘가져다가 드리니 어미 여러 날을 먹으되 진티
아니 하는 디라이에 모음에 썩디라연을 사랑호
물기 출스디는 디라연이 어버이를 지성으로 섬
겨어름이면 벼개와 자리에 부치디는 며겨은이
면몸으로 버니 불을 드스는 고능동성한에
몸에는 성훈오시 업스되 어버이 맛도 혼음식
이극하고 부외죽으매 무덤갓히 녀막하니라

楊香搯虎

南北朝末



楊香南鄉縣楊豐女也隨父田間穫粟豐為虎所噬
香年甫十四手無寸刃直搯虎頸豐因獲免太守孟
肇之賜資穀旌其門閭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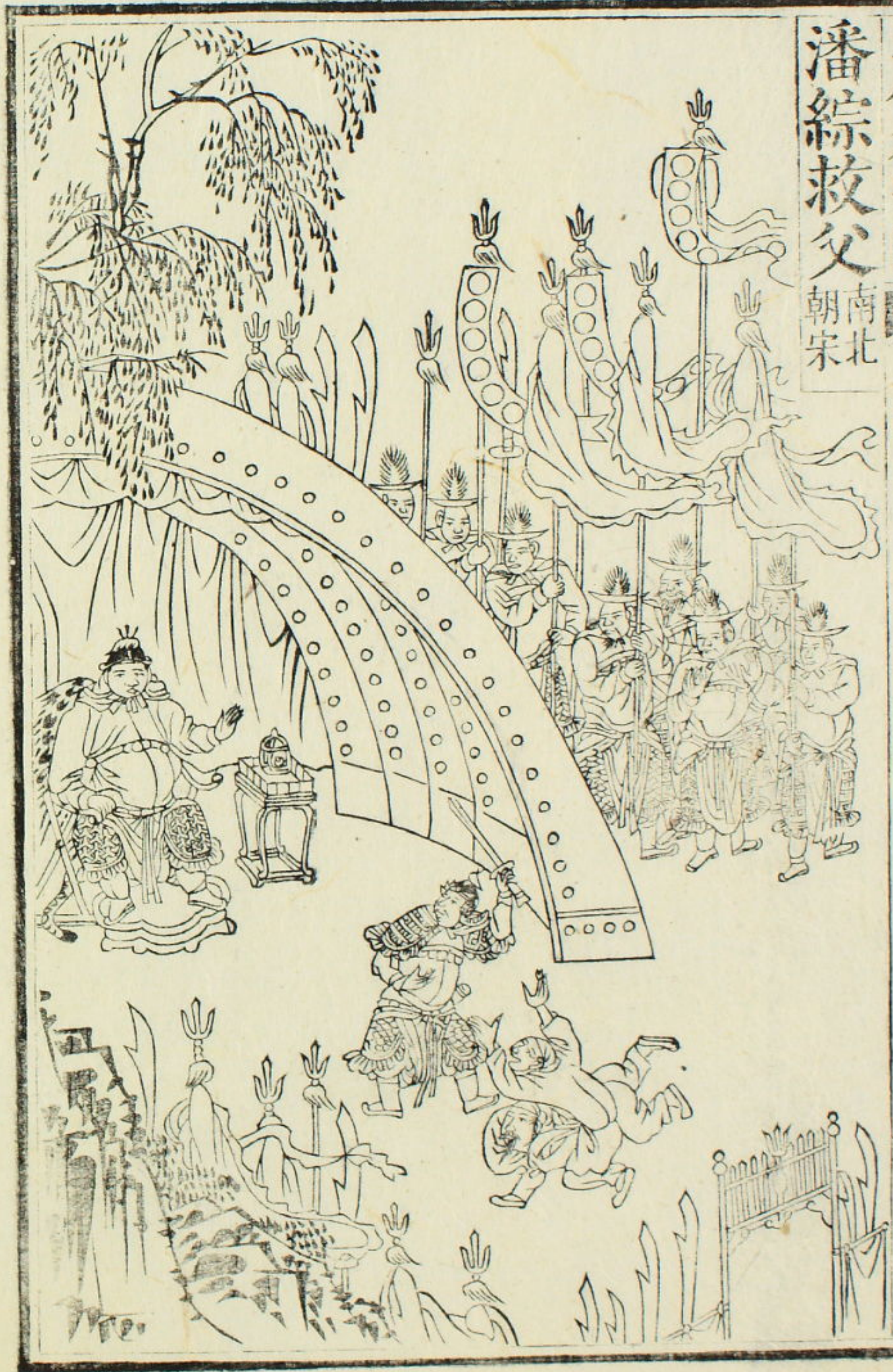
詩父遭虎噬愴心顏命在當時頃刻間虎頸搯持
寧顧死致令嚴父得生還 幼齡體弱氣軒昂父
命能令虎不傷青史尚畱名姓在至今誰不道楊
香

양향은 송나라 남향고을 양풍의 딸이니 아버지를
살와 밧히셔 곡식을 취다가 아버지의게 물니 이
니 이 새에 향의 나히겨 요심스 세라 손에 쥘고 만

늘 이 업스니 바로 범의게 드라 드리 목을 즈르 쥘
대 범이 노하 브리 니 아버사라 난 디라 원이 듯고
저 물과 곡식을 주고 정문하 니라

王倫行實圖
潘綜救父

南北朝宋



潘綜吳興人孫恩之亂妖黨攻破村邑綜與父驃共
走避賊驃年老行遲賊轉逼驃語綜曰我不能去
汝走可脫幸勿俱死驃困乏坐地綜迎賊叩頭曰父
年老乞賜生命賊至驃亦請曰兒年少能走為我不
去我不惜死乞活此兒賊因斫驃綜抱父於腹下賊
斫綜頭面凡四創綜已悶絕有一賊來語眾曰此兒
以死救父殺孝子不祥賊乃止父子並得免元嘉四
年有司奏改其里為純孝蠲租布三世

詩避難何堪喪亂餘干戈擾擾遍村墟不逢旁寇
能開釋父子當時死盜區 亂離重遇太平年三

世公租已盡蠲聞道吳興存舊業里名純孝至今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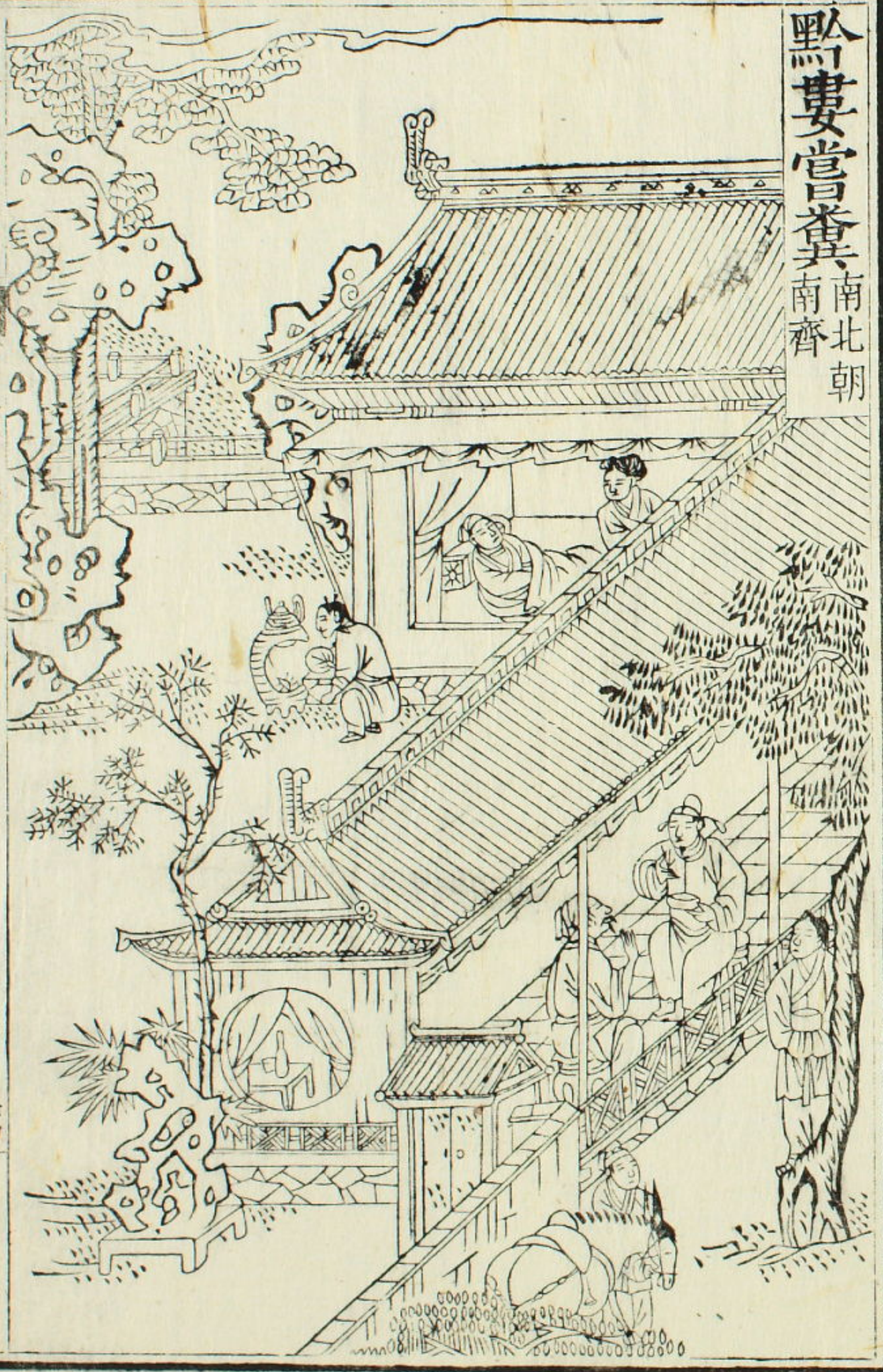
반종은 송나라 옹사름이니 손은 도적의 일
힘이라 의난
에 적당이 고을을 터파 하니 종이 아버지 표를 드려
고훈까지로도 드려나도 적을 피할 시표의 나히늘
어항뵈더디니 도적이 점점 표를 핍박하니 대피종
드려 날오디나늘 능히 가디 못하거니와 너는 드
르면 가히 버서 날디라 다 항이다 죽디 말올디니
라 피곤 핍박여 사히 안즈니 종이 도적을 마자 마
리를 조아 글오디 아버지 나히늘으니 빌건대 살리

쇼셔도 적이다 드르니 피소 훈청하여 글오디 아
히나히 점어 능히 드를 거시 로디 날을 위하여 가
디아니 하니 나는 죽기를 앓기 디아니 하니 빌
건대 이아히를 살리 라도적이 인하여 표를 석으
니 종이 아버지 안고 업된대 도적이 종의 마리와
늦출석어네 곳이 상하여 괴절하엿더니 훈도적
이와셔 모든도적드려 날오디 이아히 죽기로 벼
아비를 구하야 효조를 죽이면 상셔롭디아니니
라도적이 이에 감동하여 노하니 부지다 죽기를
면하니 라원가 송문테대
년호라 스년에 유시 주문하여 그

口은일음을고쳐순효촌이라하고삼덕을보호
하다

黔婁嘗糞

南北朝南齊



庾黔婁新野人爲孱陵令到縣未旬父易在家遘疾
黔婁忽心驚舉身流汗卽日棄官還家家人悉驚其
忽至時易疾始二日醫云欲知差劇但嘗糞甜苦易
泄痢黔婁輒取嘗之味轉甜滑心愈憂苦至夕每稽
顙北辰求以身代俄聞空中有聲曰尊君壽命盡不
復可延汝誠禱旣至故得至月末晦而易亡黔婁居
喪過禮廬於墓側

詩孱陵作令忽心驚棄職還家父疾嬰消息何曾
來遠道感通應是在純誠 願將身殞代嚴親稽
顙中天禱北辰便覺有聲傳報應從來孝念感神

人

贊在家父病庾令驚汗棄官忽歸人恠且歎嘗糞
而甜不暇自愛稽顙北辰乞身以代
유감누는제나라신야사람이니잔릉녕을하여
고을에니르런디열흘이못하여셔아비집의셔
병드러더니검뉘홀연마음이놀나와온몸의삼
이흐르거늘즉일에벼슬을버리고집의도라오
니집사람이다홀연이니르물놀나더라이새에
아비병드런디비로소이틀이라의원이닐오디
병의경동을알고저하거든그똥이들고쓰물맛

보라아비리변을보거늘검뉘맛보니점점들고
활흔디라모음에더옥근심흥여밤이면미양부
신^{이부두성}이라에마리조아몸으로덕신호물원흥니이
응흥여공등으로셔웨여닐오덕존군의슈명이
진흥여다시버더가디못홀거시로덕네정성의
로빌미지극흥고로이돌사디는살리라흥터니
금음이되매아비죽으니검뉘거상흥기름네에
넘게흥고무덤것히녀막흥니라

叔謙訪藥

南北朝
南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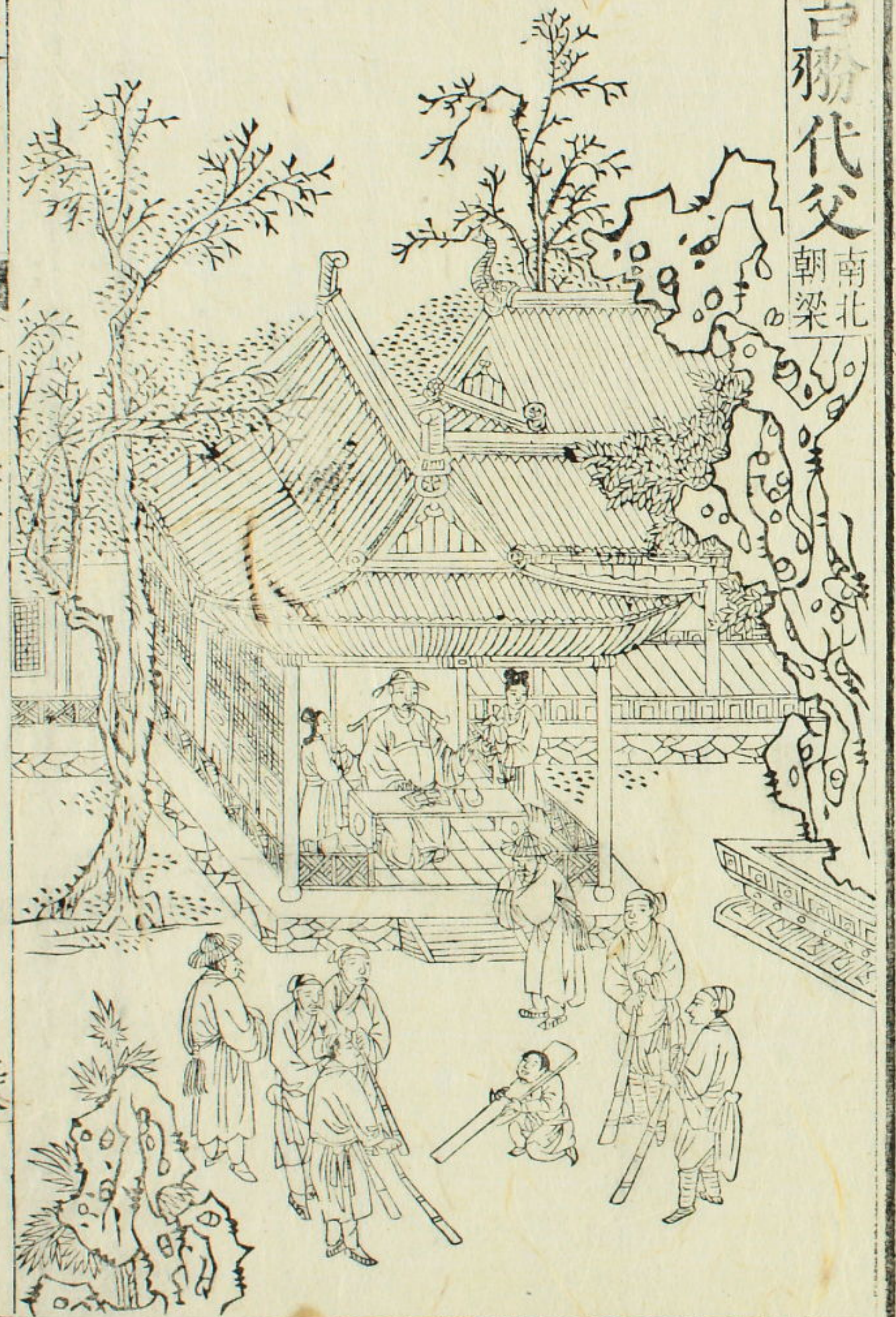


解叔謙鴈門人母有疾叔謙夜於庭中稽顙祈福聞
空中語云此病得丁公藤為酒便差即訪醫及本草
皆無識者乃求訪至宜都郡遙見山中一老公伐木
問其所用答曰此丁公藤療風尤驗叔謙便拜伏流
涕具言來意老公愴然以四段與之并示以漬酒法
叔謙受之顧視此人已忽不見依法為酒母病即差
詩母疾求醫日夜憂仰天稽顙苦祈求神明時感
誠心切說與良方治病由 叔謙孝感豈徒然應
有精誠達上天忽得丁公藤漬酒即令母病頓安
痊

히속검은제나라안문사람이니어미병이이시
매속검이밤마다슬가온대마리롤조아병낫기
롤비더니공등에서웨여닐오디이병이덩공등
약지으로술을비저먹으면나으리라하거늘의
원드러못고본초<sup>약명기록
흔적이라</sup>에츠되다알니업는
디라두로방문하여의도라하느사히니르러면
니브라보니산등의흔하은사람이남글버히거
늘그날디를므른대답하디이년덩공등이니풍
병에신타하니라속검이문득절하고업디여는
물을흘리며온뜻을주세히니르니하은사람이

감동하여 네 줄기를 주며 술 빛는 법을 다 마르치
거늘 숙검이 밧고 도라보니 그 사람이 홀연간 덕
업더라 법대로 술을 민드라 드리니 병이 나은니
라

吉勳代父 南北 朝梁



吉翬馮翊人父爲原鄉令爲吏所誣逮詣廷尉翬年十五號泣衢路祈請公卿見者隕涕其父理雖清白而恥爲吏訊虛自引咎罪當大辟翬搗登聞鼓乞代父命武帝異之以其童幼疑受教於人勅廷尉蔡法度脅誘取款法度盛陳徽纒厲色問曰爾求代父死勅已相許然刀鉅至劇審能死不若有悔異亦相聽許對曰囚雖蒙弱豈不知死可畏不忍見父極刑所以殉身不測翬初見囚獄掾依法桎梏法度命脫二械翬弗聽曰死囚豈可減乎法度以聞帝乃宥其父揚州中正張仄薦翬孝行勅太常旌舉

詩父爲遭誣陷極刑誓將身代愬中情誰知天鑑非玄遠父子俱全表孝誠 堪羨兒童有至情哀號代父感朝廷當年孝行蒙旌舉遂使千秋有令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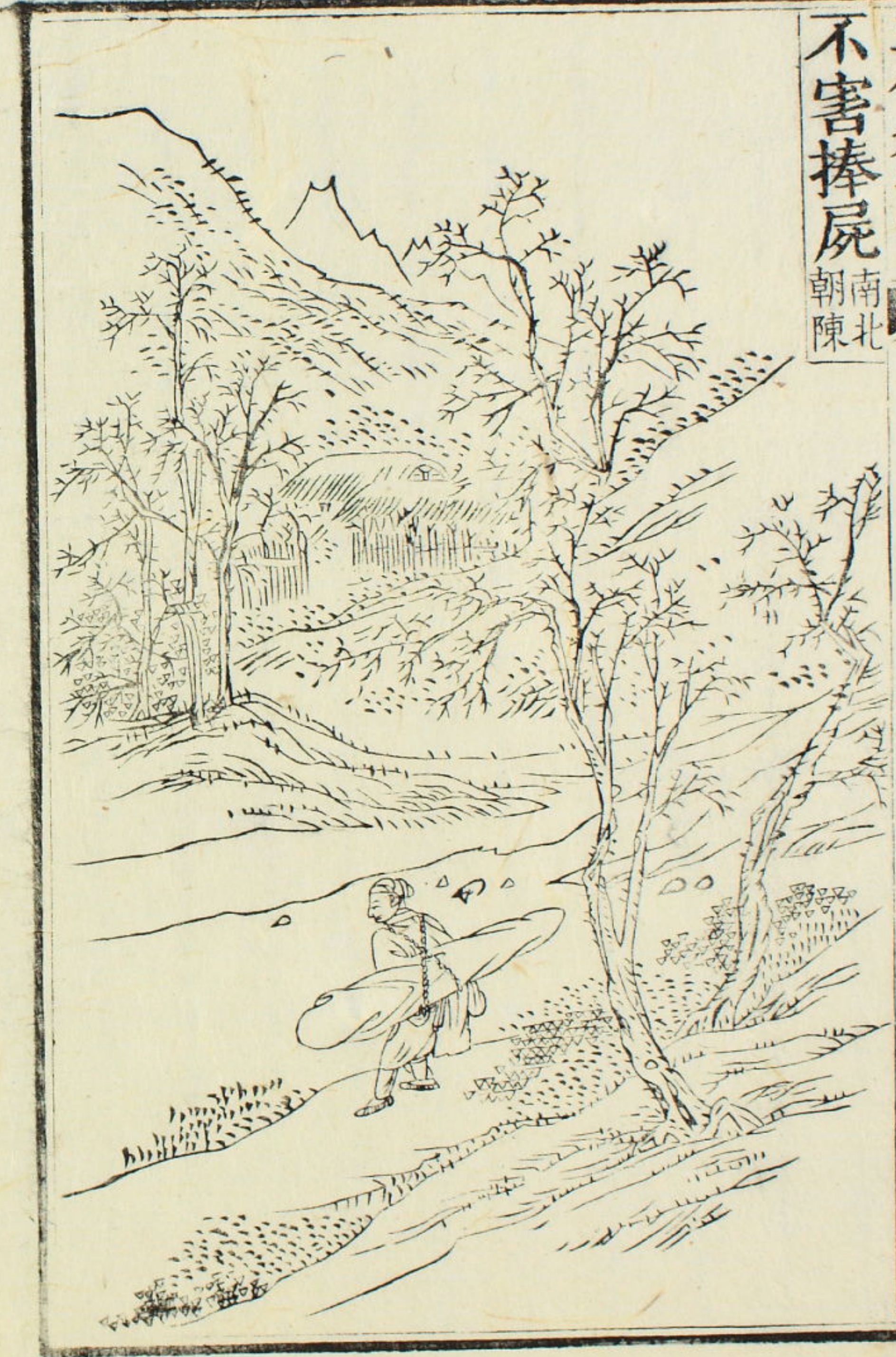
길분은량나라풍익사람이니아비원향녕을흥
엇더니아전의무함호배되여잡히여덩위_{법마튼}
라에나아갈시이새에분의나히심오세라길거_{마을이}
리에우지디며공경의게빌고청하니보는사람
이다눈물을흘리더라그아비비록청박하나옥
니와디변음을붓그려하여스스로죄를당하야

죽게 되었노디라분이 등문고를려아빅명을디
신하여디라하니련지기이히너기되어린아히
라하여놈의게 마르치블바든가의심하여텅위
채법도를명하여저히며달내여등정을시험하
라하니법되형벌괴구를성히베플고느빗출석
식이하여무러존오디네아비디신하여죽기틀
원하니이미명하샤하하여시나칼과톱이심히
두려오니혜아리건대능히죽을다만일뉘우츠
미이셔도쏘하네원대로하리라분이존오디죄
인이비록어리나엇디죽기두려오믈모로리오

마는츠마아비극형호믈보디못하여블츙하디
죽으려하노라분이 처음에갓치이매옥관원이
의법히칼을메오니법되명하여칼을벗기라하
대분이듯디아니하여존오디죽을죄인이엇디
칼을버스리오법되이말노님군기알외여그아
비를노하더니원이본의효행을천거하여벼슬
하이니라

王倫行實圖
不害捧屍

南北朝陳



殷不害陳郡人居父憂過禮有弟五人皆幼不害事
老母養小弟勤劇無所不至簡文帝賜其母蔡氏錦
裙襦氈席被褥魏平江陵失母所在時甚寒雪凍死
者填滿溝壑不害行哭求屍見死人即投身捧視舉
體凍僵水漿不入口者七日始得母屍哭輒氣絕行
路流涕蔬食布衣枯槁骨立弟不佞亦至孝方母死
時道路隔絕不得奔赴四載之中晝夜號泣居處飲
食常爲居喪之禮及母喪柩歸身自負土手植松柏
每歲時伏臘必三日不食

詩百行由來孝最先人心盡孝理當然慈親不幸

墳溝壑七日哀求重可憐 父母劬勞竟莫酬
昊天罔極思悠悠殷家兄弟能行孝萬古揚名永不休

은불해는진나라진군사름이니아비죽으니거
상을네에넘게하고아이다스시이시되다어린
디라불해노모를섬기며어린아을양육하여근
뢰지극하니런지거특이너겨그어미를비단의
복과침석을주시다후의병난을만나어미를일
흐니그새심히침고눈이빠혀얼어죽는사름이
글형이마득한디라불해울고돈니며신례를구

홀시죽엄마다붓드러보고슈양을먹디아니하
연디니레만의비로소어미신례를엇고통곡하
여기절하니길사름이다눈물을흘리고노물밥
과뵈오스로몸이여위여썩드러나타아은불
령이또호호히이거극하여어미죽을새의길히
막히여분상을못하니네히를듀야로울며거쳐
와음식을상인르티하더니어미상귀도라오매
몸소흠을져못고송벽을심으며세시와복납의
사흠을밥먹디아니하더라

王倫行實圖

王崇止雹
南北朝
北魏



王崇雍丘人母亡居喪哀毀頓瘠杖而後起鬢髮墮
落廬於殯所晝夜哭泣鳩鵲羣至有一小鳥素質黑
眸形大於雀栖於崇廬朝夕不去母服初闋復丁父
憂悲毀過禮是年夏風雹所經處禽獸暴死草木摧
折至崇田畔風雹便止禾麥十頃竟無損落及過崇
地風雹如初咸稱至行所感崇雖除服仍居墓側室
前生草一根莖葉甚茂人莫能識至冬復有鳥巢崇
屋乳養三子馴而不驚事聞詔旌表門閭

詩孝道由來動鬼神王崇至行出天真珍禽繞屋
能馴擾異草當堦別有春 風雹摧殘物盡僵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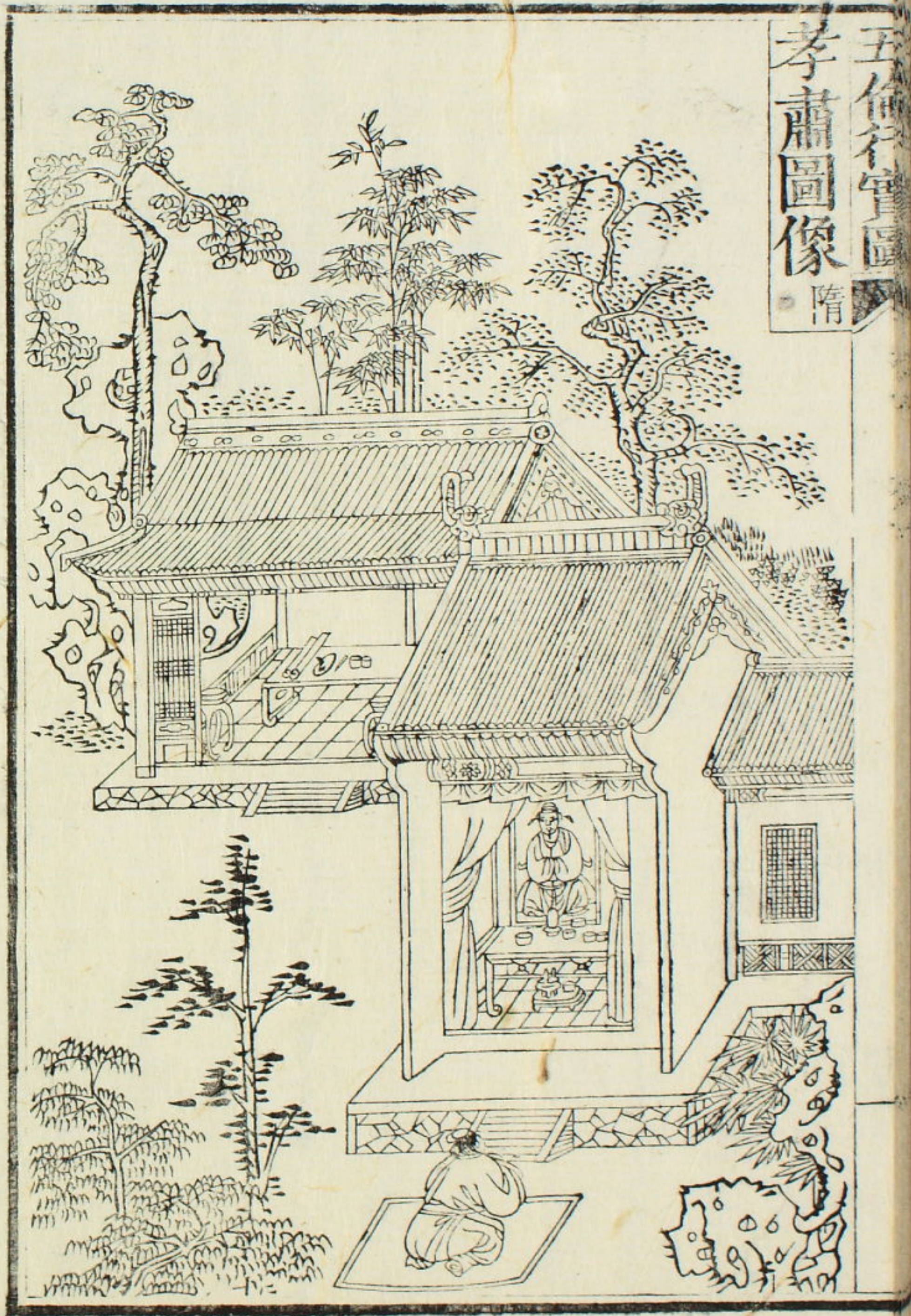
家禾麥豈曾傷自緣孝行通天地賴有靈柢爲顯彰

왕송은위나라옹구사람이니어미죽어거상을
시위회하여몸이므르니막대를잡은후의니러
나고귀밋히털이다싸디고빈소에녀막하여듀
야로곡읍하니새증성이모다니르고그등에흔
져근새이셔몸이희고눈이검으며형상이츄새
에셔느큰디라송의녀막의깃드려도석의가디
아니하더니어미거상을처음으로맛고다시아
비상스름만나이회하기네에넘게하더라이히

여름에바람불고물의오니디나는곳의증성이
죽고초목이깃거디되송의밧히니르러는바람
과물의믄득긋쳐곡식이상호미업터니송의밧
출디나며바람과물의도로니러나니사람이다
닐오디지극하호성의감동하배라하더라송이
거상을맛고인하여묘축에셔사니집알픽풀하
퍼귀나셔줄기와남히심히무성하니사람이능
히알니업터니겨온의또새하나히집우히깃드
려삿기세흔치니길드러놀나디아니하느디라
나라히드르시고송의집에정문하시다

五倫行實圖
孝肅圖像

隋



徐孝肅汲郡人早孤不識父及長問父形貌於其母
因求畫工圖之置之廟而定省焉朔望則享之事母
數十年家人未見其有忿恚之色及母老疾孝肅親
易燥濕憂悴數年見者無不悲悼母終茹蔬飲水盛
冬單衰毀瘠骨立祖父母父母墓皆負土成墳廬墓
者四十餘年被髮徒跣至於終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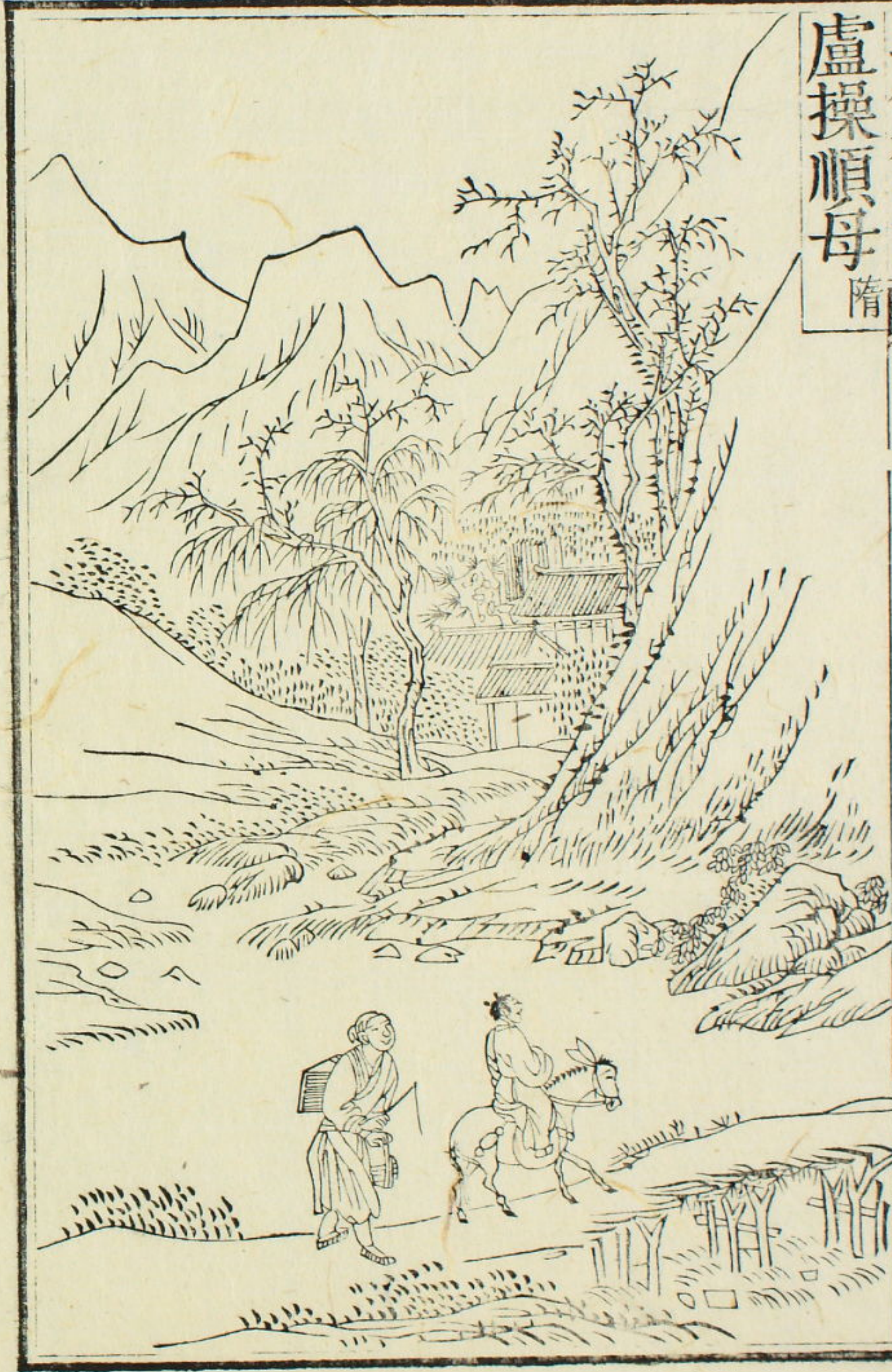
詩早孤不識父容儀圖像依依問母慈構廟晨昏
能定省殷勤祭享似存時 母存愛敬歿悲辛廬
墓曾經四十春兩世墳塋躬負土跣行被髮竟終
身

서효숙은 슈나라 급군사람이라 어려서 아버지 죽
으니 아버지 얼골을 아디 못하야 주라매 그 어머니
러 아버지 얼골을 무려 화원의게 그려내여 스당에
두어 묘석으로 뵈옵고 삭망으로 제하며 어머니 섬
견디 수십년에 집사람이 그 성내느 빗출보디 못
하더너 어머니 늙고 병들매 효숙이 친히 모른디와
저즌디를 밧고와 누이며 수년을 근심하야 여외
기심하니 보는 사람이 다 슬하하고 어머니 죽으매
느물과를 만먹고 갑흔겨을의 훗최복을 남고 휘
척하야 쎄 드러나고 조부모와 부모의 무덤을 다

흙을 쳐다가 일우고 무덤갓히녀막하야 스십여
년을 마리 풀고 밧버서 종신사디 나르니라

五倫行實圖
盧操順母

隋



盧操河東人九歲通孝經論語事繼母張氏至孝張
生三子溺愛之命操常執勤主炊操服勤不倦張遣
其子讀書命操策驢隨之操卽執鞭引繩如僮僕三
弟嗜酒縱佚抵忤於人致人踵門詬及其母操卽涕
泣拜而解之惡少年曰不謂三賊有此令兄相與拜
操而去繼母亡操訓養三弟恩愛過於平日服母喪
哀毀骨立每夕有狐狸羅列左右將朝乃去後調臨
渙縣尉佐政寬仁官舍設几筵以祀父母出告反面
過其庭鞠躬如也每朝讀孝經一遍然後視事讀至
喪親章輒號咽不勝

詩殷勤行孝順親心委曲應知敬愛深執爨驅驢
能友弟里中惡少亦加欽 憶昔居廬淚滿巾一
爲縣尉尙寬仁几筵設祭敦時祀朝夕哀悲更愴
神

노조는 슈나라 하동사롭이니 구세에 효경과 논
어물알고 계모양시물지효로섬기더니 양시세
아들을나하편벽히 사랑하고 조로하고 여곰밥을
지이니 죄조곰도 게얼리아니하고 그아들이 큰
넓으라 갈시 조로하고 여곰나귀를물니이니 죄채
를잡고 못비를잇그러 노복곳티하고 세아이슬

을즐겨노니다가 사름과도 노니 그사름이 집의
씩라와어미를욕하고 놀죄을며 절하고 여말리니
악쇼년이 곧오디세놈이엇디이런어딘형을두
엇는고하고서로터브러조의게절하고가더라
계뫼죽으며죄세아온마르치고길러사랑하미
상시에디난디라어미거상을넘고이휘하고여췌
드러나니저녁마다여호와숨이좌우의라렬고
엇다가셀만하고면가더라후에원을하고여딩시관
인하고관사에계연을베프러부모를제하고나
갈제고하고도라오면뵈오며그뜰에디날제국

공하고아침이면효경을읽으면너은후에공수를
하되상천장 효경에거상
하느글이라 의니르러신은득오열을
여견디디못하더라

